

베드로전후서 강해 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성경말씀: 뵤전1:1-16

교회에 오는 목적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인가? 지옥 형벌을 면하면 끝인가? 여기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살아야 할까?(롬6:1-2), 목표를 바르게 정하지 않으면 인생 여정에서 구원받고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요17:3).

그러므로 구원 이후의 삶을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대부분 성도들의 착각과 이해 부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는 말이지만 대단히 틀린 말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구원과 성화의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속성: 스스로 존재하는 분, 삼위일체, 전지전능, 무소부재, 신실, 불변하는 분, 사랑과 긍휼
현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공의와 거룩함의 하나님

성경의 구조: 창조, 구속, 예배(레19:2; 시29:2 ; 99:9; 뵤전1:15)

holy 611, holiness 43, sanctify, 187회: 약 841회

love 310, loveth 65, lovest 12, loved 98, loving 3: 488회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출3:5),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수5:15),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사야 6:3,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4:8, 은혜, 은혜, 은혜 No! 사랑, 사랑, 사랑 No!!!!
하나님은 자신의 온 창조 세계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건강은 곧 거룩함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반대가 되는 것은 영원토록 그분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거룩함을 파괴하는 것은 다 멸하려 하신다.

o 에덴동산의 죄, 노아의 대홍수,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동성애), 나답과 아비후(레10:1-3), 웃시아 왕(대하26:16-21)

o 아나니아와 삽비라, 고린도 교회의 음행한 자(고전5:3-5), 주의 만찬 무시(고전11:28-30), 헤롯(행12:20-23)

십지어 모세와 아론도 죽음(민20:12), 반석에게 말하라(8), 화가 나서 반석을 내리침(11)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love가 아니라 charity

고전13:4-7, 공의가 동반되는 사랑이라야 예수님의 사랑, 무례함 No, 불법 No, 진리 Yes

o 킹제임스 성경만이 올바른 성경이다. 다른 것은 틀린다.

o WCC는 악한 것이다.

o 교회에서 무례히 굴지 말라.

거룩한 자가 되라.

1절: AD 65년경, 일반 서신, 주로 여러 지역의 유대인 대상(터키 위 지방)

2절: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님의 거룩히 구별하심(선택, 예정),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 예지 예정

3절: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하심,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허당

4절: 그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됨(아바 아버지)

5절: 세상의 끝에(간절히 재림 소망), 예비된 '예약'을 뜻함. 비행기 예약, 호텔 예약한 뒤 종종 가 보면 취소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파워)에 의해 보호받는다. 여기의 보호는 군사용어로 율타리 치는 것을 말한다.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유지도 믿음으로 된다.

6절: 서신의 대상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험과 근심: (a) 필요가 있어서, (b) 여러 종류이다, (c) 쉽지 않다, (d)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잠시’

성도라고 세상의 문제들에서 면제되지 않는다(고전10:13). 가정, 직장, 결혼, 자녀, 재정, 공부
7절: 고통의 목적, 단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금광석, 용광로, 불순물 제거, 순금, 금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통스럽다. 개인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거룩한 교회로 만드시려고
궁극적인 영광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나타난다.

8-12절: 이런 영광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고후5:7).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고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어 주셨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만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13절: ‘그러므로’ 혼의 구원을 통해 미래의 영광과 현재의 기쁨을 누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고 일하고 섬기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 믿음을 생활해야 한다. 전망은 결과를 낳는다. 우리의 태도는 행동을 가져온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14절: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전의 정욕들을 따르지 말라. 헛된 말, 거짓말, 술 취하기, 음행, 비방, 소문 퍼뜨리기, 파당, <혈담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남의 험담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 즉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 자신,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 話題(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

15-16절: 기록해야 한다. 어디서,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왜? 하나님이 기록하니까.

현대 교회는 기록함을 잃고 있고 그것을 사랑과 혼동하고 있다.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기록함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사랑이 아니라 기록함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기록하게 경배하여야 한다(출15:11).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기록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이다”(시29:2).

그래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저속한 음악, 가사, 말, 입신, 방언 등을 쓰레기통에 넣어야 한다.

교회에 올 때만 거룩한 체 하지 말라. 예배드리고 성경공부 할 때만 거룩한 체 하지 말라.

교제 시간에, 가정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구분된 말과 행동이 나와야 한다.

“빨개 벗고 다니는 것을 좋아해요”, “구역 모임 후 술자리, 노래방”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고후5:10-11

엡4:17-32, 5:26-27

영혼의 자유, 사랑, 은혜를 그대로 놔두면 문제를 일으킨다.

이것은 기차와 같다. 사랑의 엔진, 이 기차가 있기에 모든 것이 편하다. 어디든지 간다. 짐을 실어 나른다.

정치를 본다. 신다. 그런데 이 기차가 마음대로 다니게 하면 사람을 죽인다.

반드시 레일 위에서 다녀야 한다. 그 레일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모든 일이 질서 있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경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말, 복장, 행동, 교제(핸드폰 걸러링). 교회 밖에서 만났을 때 나누는 대화와 행동이 바로 그 사람을 나타내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다.

사랑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교회가 수용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며 그런 식의 거룩하지 못한 경배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잠28:9). 그러므로 기준과 표준을 요구하지 않는 기독교는 바른 기독교가 아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세상의 것을 버리고 야곱과 같이 베엘로 올라가야 거기에 부흥이 있다(창35:1-5). 따라서 교회 안에서 사랑과 거룩함이 갈등을 일으킬 때 반드시 거룩함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살 수 있는 또 존재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근거이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베드로전후서 강해 8: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성경말씀: 벧전1:17-22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다.

엡2:8-9, 롬3:20-24, 갈2:16 등

이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싸구려로 변질되고 있다. 값싼 구원, 싸구려 구원

그 결과 구원 받은 이후에 삶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요즘 구원파, 사랑의 교회(불법, 위법, 무법)

무진장 애를 써서 구원을 얻으라고 했으면 구원받은 뒤에 그것을 엄청나게 귀중히 여길 것이다. 구원을 값싼 것으로 여기는 자들은 시험과 유혹이 닥치면 본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시험과 유혹: 마귀, 세상, 육신이 불려온다.

한편 구원받고 빠르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되어 있다(딤후2:12).

정상적인 핍박, 이단으로 핍박받는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베드로전서의 주제: 고통과 고난(벧전2:21)

베드로의 임무(요21):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구원 받았으나 로마 치하에서 고생하며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참고 견디라고 말한다(6-7).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한다(13).

그러면서 이전 정욕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명령한다(14-16).

현대인들이 아는 하나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공의와 거룩함의 하나님, 공의와 거룩함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거룩함이다. 여름철 의상 조심

17-22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고 그 결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 준다.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그리스도인은 행실로 그리스도를 보여야 한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의 행실

하나님과 성도(17)

1.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appearance이고 person이 아니다). 사람 혹은 재판관과 다르다. 지위, 부귀, 학식, 미모, 권세 No
 - a. 구원을 주실 때도(행10:34), b. 심판하실 때도
2.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롬2:6-11
3. 그래서 성도들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약2:1-4).
4.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간구한다.
5.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으면 두려움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빌2:12).
6. 우리는 여기서 잠시 머문다(벧전1:1). 히11 믿음의 성도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 이유는 무엇인가?(18-19)

1. 과거에 우리는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것의 헛된 행실을 기준으로 살아왔다. 헛된 행실(생활 방식): 주로 우상 숭배, 잡신 숭배, 샤머니즘, “지성이면 감천이다.”
 - d;슬람, 불교, 천주교 등 모두가 행위 구원이라는 헛된 행실을 가르친다.한국식 기독교도 헛된 것이 많다: 성전, 제사장 같은 개념, 버려야 할 헛된 행실이다.
2. 헛된 생활 방식에서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다. 구속: 노예 시장에 팔려나온 노예에게 자유를 주려면 돈을 내고 사야 한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한다. 노예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능력이 없다(롬5:6-8).
3.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일을 다 이루신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사람 편에서는 100% 무료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큰 희생을 하신 것이다. 특히 아버지 편에서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몸소 보아야 했다(골5:21).

구속과 구원의 차이: 구속은 하나님의 일, 구원은 내가 원해야 한다.

구속의 방도: 그리스도의 피(19)

1. 아담의 죄, 하나님의 진노, 마귀의 사망 집행, 죄없는 피
2. 구속을 이루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한다(대신 속죄). 그러나 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3. 그분은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한다. 그 피는 보배로운 피(precious blood)
3.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 출12의 유월절 규례, 1월 10일에 어린양을 택한 뒤 사흘 동안 점검하고 1월 14일에 죽여서 그 피를 대야에 담아 우슬초에 묻혀서 문기둥과 인방에 뿌려야 한다. 피가 뿌려진 집은 파멸시키는 천사가 넘어갔고 없는 집은 장자의 죽음이 있었다.
4. 구약은 예표이고 신약은 실체이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양 예수님(요1:29)은 1월 10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사흘 동안 분명히 보이시고 정확히 1월 14일 유월절에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셨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

1. 속죄(육체의 생명은 피,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한다 레17:11, 히9:22), 구속(벧전1:18)
2. 칭의(롬5:9), 3. 하나님과의 화평(롬5:9), 4. 죄들의 용서(엡1:7)
5. 성화의 삶(요일1:7; 히13:12), 6. 하나님의 왕좌 앞으로 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히10:19)
7. 믿음의 성숙함을 준다(히13:20-21). 8. 신약을 여심(마26:28):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
9. 형벌과 심판의 근거가 된다(히10:29).
10. 기독교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21-22)

1.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진 분,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분(계13:8)
2.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은 영원 전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일
3. 바로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드러나셨다. 처녀 탄생을 통한 성육신
4.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딤후3:16)
5. 복음의 핵심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22-23)

1. 우리는 복음을 듣고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여 바로 이분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였다.
2.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다(히11:3).
3.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영생을 허락하신다.
4. 그 결과 구원받은 우리는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위선 No!
5. 주님의 유언의 말씀(요13:34-35).
6.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 하나님 사랑, 지체 사랑,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사랑
7. 베드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한다. 이 마음은 믿음에서 온다(행15:7-9).
8. 그리스도인의 이런 사랑을 charity라고 표현함. Charity는 신약에만 28회(고전에만 12회), 그리스 어 아가페는 총 117회, 89회는 Love로 번역됨. 헌신적으로 주는 사랑
9. 고전13장, 대언, 방언, 신비, 지식, 믿음, 희생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은사, 재능은 다 없어진다.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교회 일을 사랑을 따라 하라.
10. 형제들에게 부탁하는 말: 아내와 자식을 모질게 대하지 말라(골3:19). 폭력, 폭언, 무관심 No!
11. 교회의 지체들에게 부탁하는 말: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지체들의 고통이 있는지 눈여겨보라.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할까?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는 장소가 아니다.
12. 히10:23-25

결론

1.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기록하고 올바른 행실, 뜨겁게 하나님, 지체, 불신자들을 사랑함

베드로전후서 강해 ㄱ: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말씀: 벰전1:23-25

성도로 부르신 목적: 기록한 자(15-16),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함(18-19)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창조자 하나님 안에 두어야 한다(21).

그리고 거짓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함(아내와 자식, 지체, 불신자들, 22).

형제들, 창5:1, 3, 마1:1,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모두가 형제/자매

어떻게 주님의 한 세대에 들어가는가? 영적 출생을 통해서(요3:1-16)

육적 출생에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하듯 영적 출생에도 성령님(요3:5-6)과 말씀(벰전1:23)

육에선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요3:6)

오늘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 형제로 만드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가?

말씀은 씨이다(23)

첫째 출생은 육체의 출생, 씨를 씨에서 난다. 썩는다.

우리의 아들딸들은 다 죽는다. 인류의 역사를 보라. 몇 백 년을 가지 못한다.

심지어 지역 교회도 마찬가지다(계2-3의 7교회). 육신적 노력으로 이루는 교회는 오래 가지 못한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썩지 않는 씨로 태어나는 것이다.

당신은 다시 태어났는가?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가? 말씀에 의해서(23절)

여기의 말씀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이다. 복음을 담은 성경(25절)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기적, 예수 그리스도 등), 성경은 특별하고도 특별한 계시,

기도, 체험(방언, 신유), 전통, 훈련(교육)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 다시 태어난다.

그 결과 성령님이 우리 몸을 다 소유하신다(고전6:19-20). 맹장과 같은 부수적 존재가 아니다.

눅8:4-15,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길가, 바위, 가시나무, 좋은 밭(백 배의 열매)

11절을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는 없다(롬10:17).

벰전1:18-19절의 진리를 무엇을 통해 알고 받아들이는가?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주님이 되어야 한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No! 이단의 문제: 말씀에 따라 믿지 않는다.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안상홍, 통일교, 이슬람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데 성경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가?

한국 교회의 실정: 과연 성경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 성령 반말 No!

성경의 창조자 하나님, 성경의 구속자 하나님, 성경의 구원자 하나님, 성경의 재판자 하나님, 성경의 심판자, 복음의 핵심도 성경기록대로

말씀은 살아 있다(23)

하나님의 영감(딤후3:16), 숨이 들어 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을 살린다(창2:7), 히4:12

그래서 매이지 않는다(딤후2:9).

이 책은 잉크와 종이로 되어 있는데 살아 있다. 중세 천주교 암흑시대: 성경 멸절

왜 그런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 있다. 성도들 안에 계신 그 영과 동일한 영이 들어 있다.

바로 이 영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

성경을 읽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불신자의 경우, 죄를 확증해 준다(롬1:29-31). 코너로 몬다. 그래야 행복한다.

신자의 경우, 죄를 확증해 준다(구원받은 자들의 삶, 골3:19). 회개하게 한다. 성장하게 한다.

시19(7-14), 혼을 회심시킨다. 지혜롭게 한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 진실하고 의로우므로 금보다 더 사랑하고 꿀보다 더 달게 여겨야 한다.

성경의 효능이 이러하므로 읽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미국의 타락, (1)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80%)는 성경 말씀이다. (2) 소돔과 고모라는 남편과 아내, (3) 산상 수훈은 빌리 그래함, (4) 사람의 가장 큰 임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 설교가 부실하고 성도들조차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슬픈 현실 올해 성경 일독을 시행 중, 읽어야 산다. 구원받을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말씀은 영원토록 거한다(23, 25)

마24:35

이 성경은 이 땅과 하늘의 모든 원소들이 녹아도 그대로 남는다(벧후3:10). 인간의 모든 것은 없어져도 여전히 하늘에는 이 성경이 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보여 준다. 24-25는 사40:6-8 인용, 6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7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모든 사람은 풀과 같다. 느부갓네살, 알렉산더, 카이사르, 헤롯, 진시황, 징기스칸, 어거스틴, 교황, 칼빈, 이순신, 세종대왕 다 소용 없다. 사람의 영광은 풀의 풀과 같다(911 세계무역센터, 에펠탑, 만리장성, 63빌딩 피라미드(시2:1-4), 지구는 먼지와 같다. 사람의 업적을 자랑하지 말라. 심지어 들의 백합의 영광과도 같지 못하다(마6:28-29). 고양이, 어린아이, 금붕어를 보라. 심지어 인간을 복제해도 그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꽃의 수명은 매우 짧다. 백합 열흘을 가지 못한다. 그 좋던 것이 누렇게 변한다. 다윗의 고백(시103:15-16)

15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16 바람이 그것의 위를 지나가면 그것이 없어지나니 그것이 있던 자리도 다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도 풀처럼 이 땅으로 들어와 잠시 영광을 보이고 살다가 죽는다. 피어스 선교사님 그러므로 영원을 어디서 보낼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고민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고민하며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

유일한 구원자, 대신 속죄, 죄인, 영존하는 생명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존해 주신다. 보존이 없으면 다 공허한 말이다.

시12:6-7

이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말씀을 손에 들고 있다.

전 세계 공통어인 영어로 모든 단어를 보존해 주셔서 누구나 보고 알 수 있게 해 주셨다.

킹제임스 성경, 바로 이 성경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완전한 말씀의 확신이 없이 어떻게 믿음생활 하는가? 설교를 하는가? 불가능하다.

결론

우리는 형제/자매인가?

다시 태어났는가?

무엇으로? 말씀으로, 확실한가?

이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는가?

그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가? 확신하는가?

베드로전후서 강해 4: 성도의 신분과 의무

성경말씀: 뵈전2:1-10

뵈전1:23-25, 우리는 썩지 않는 씨,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그 성경 말씀은 영원무궁하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복음의 말씀이다. <성도의 신분과 의무>, 성경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의 신분과 의무를 살펴보려 한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1-3)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집의 아인들로 태어난다.

그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충분히 젖을 먹고 성장하는 것이다(2).

이 세상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하는 일: 젖 먹고 자고 크는 것, 젖을 주지 않으면 난리가 난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다시 태어난 사람의 가장 확실한 특징 중 하나, 말씀 사모, 일생에 한 번 경험 그래서 베드로는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한다(3). 시19:10 꿀과 벌집보다 달다.

그 젖은 어떤 젖인가? 말씀의 순수한 젖, 믿음을 키우는 유일한 수단(롬10:17)

개역성경: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믿음+행위'의 카톨릭 구원 방법,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 구절과 빌2:12 때문에 힘들어 한다.

구원은 출생, 그 이후에 자라야 한다(뵈후3:18).

아이들이 잘 먹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다른 것을 먹는 경우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은 치워야 한다.

성도의 성장을 막는 것: 1절의 모든 악의와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다.

악의: 사악한 일, 누구를 심히 미워하는 것, 악한 의도를 품는 것, 교회를 뜨게 하는 누룩(고전5:6-8)

교활함: 속이는 것, 이것들을 몰래 숨기면 위선이 된다. 악의를 품게 만드는 요인: 시기와 질투, 여기서

비방하는 말이 생긴다. 악한 가십 등을 치우지 않으면 건강한 아이로서 젖을 빨며 성장할 수 없다.

우리의 첫째 신분: 하나님의 가정의 복된 아이(요1:12)

영적 집의 돌들(4-8)

마16:18,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내 교회'가 바로 5절의 영적 집이다. 오순절부터 교회의 휴거 때까지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의 돌이 그 집에 추가가 되며 그 집이 완성되어 간다. 피라미드 생각해 볼 것

나라와 민족이 상관없다: 뵈전1:1의 다섯 지방. 나이와 시대가 상관없다. 한 집(엡2:19-22),

그 집의 으뜸 모퉁잇돌이 바로 예수님이다(엡2:20).

1. 그분은 산 돌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다.

2. 아버지께서 선정하신 돌이다: 자기 뜻대로 오신 분이 아니다. 족생자

3. 보배로운 돌이시다.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 성도들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두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1. 유대인들은 그분을 떨시하고 배척하였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야가 아니다.

2. 그 이유: 그들은 말씀에 걸려 넘어졌다(8절).

a.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태어났다(요8:44).

b.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요8:58).

c.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요10:30).

3. 그래서 그분은 건축자들이 거부한 돌로서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바위가 되셨다.

4.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분은 보배로운 돌이 되신다(7).

a. 유일한 신랑(아5:10-16)

6. 단2, 세상 왕국의 변천,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모든 왕국을 격파하고 하늘의 왕국을 세운다(단2:44-45).

왕가의 제사장(5절 읽고)

그 살아 있는 돌에 의해 우리는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 희생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5).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특별한 지위를 가진 자
priest, priests 약 900회,

창14장의 멜기세덱, 율법 수여 이후 레위 지파,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제사장과 백성, 성직자와 평신도의 계급 차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성전 휘장이 갈라지면서 누구나 하나님의 왕좌 앞에 들어가는 특권

전 성도 제사장직: 지난 2000년 동안 신약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지킨 가장 굳건한 믿음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다(계20:6).

즉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

목사만이 아니라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

1. 선정된 세대: 아담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세대가 있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세대들은 첫 아담의 세대들, 신약에서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만 선정된 한 세대

2. 거룩한 민족: 과거에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가는 민족, 하나님께서 구분하셨으므로 신약의 우리 역시 핏줄은 다 달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별된 민족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10)

특별한 백성: 여기의 peculiar는 원래 소유물을 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자신의 소유이다.

아무도 우리를 빼앗지 못한다.

과거에는 무할레자라 불리며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한 외인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공화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공화를 얻었다.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백성이 된다.

성도의 신분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9)

영적 집의 돌, 왕가의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민족

우리는 하나님의 트로피이다. 우리가 천사들도 판단할 것이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우리가 보이게(널리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9). 계4:11

가족, 교회, 사회, 국가에서

과거의 이스라엘이 이런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였다.

개인과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나 교회를 쓰신다.

우리가 할 일

1. 개개인의 믿음 성장(말씀)
2. 지역 교회 확고히 설립, 유지, 계승
3. 선교/전도 사역(지역 교회들, 목사들 지원)
4. 모든 것의 기초인 말씀 수호
5. 휴거의 소망

베드로전후서 강해 15: 그리스도인의 국가관

성경말씀: 벘전2:11-25

벘전2:1-10,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의 신분과 의무, (1) 하나님의 아들딸: 새로 태어난 아기들, (2) 영적 집의 돌들(4-8), (3) 왕가의 제사장, (4)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트로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보여야 한다. 가족, 교회, 사회, 국가에서

세월호 사건, 50일이 지남, 마음이 착잡하다. 많은 성도들을 무지로 넣고 돈을 갈취하고 영혼을 피폐하게 함.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돈만 모으다가 초대형 안전사고를 냄,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국가의 공권력을 떨치하며 도망다님, 망명 신청까지 냄, 우리 성도들로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교회 사이트에도 이런 글이 올라온다, 5,000억 횡령, 교회 프렌차이즈, 그리스도인 병역 기피자가 될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 등이 나면 촛불 집회장으로 나가야 하는가? 직장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국가관>, 사회적 책임

베드로전서의 핵심은 2:11-3:12, 내용은 세상 권위에 순종하는 것, 무법 세상, 평등 세상에서 실행하기 어려움. 노동당 투표 참관인, 대통령의 악수 거부,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자가 어울리지 않게 대통령이 랍시고 악수를 청하는 게 아닌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악수에 응하지 않았다.”

권위가 파괴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국가(11-17), 사회 직장(18-25), 가정(3:1-7), 교회(3:8-12)

국가, 사회, 가정, 교회에서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노예를 뜻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질서 파괴되고 국가, 사회, 가정, 교회가 멸망한다(고전14:33). 사람은 누구나 권위를 행사하기 원한다. 그런데 그 전에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

국가의 형성: BC 2400년경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인간 정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창9:5-7). 순서, 권위 하에서 다산하라. 창10-11장 민족 형성, 바벨탑 분산

예수님과 사도들의 국가/사회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국가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1. 마17:24-27, 가버나움에서 공세를 내심, 자녀들은 면제, 세상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내심.
2. 마22:15-22, 바리새인들, 카이사르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 카이사르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
3. 눅13:1-5,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은 것,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 데모해라. No! 사람인지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탐욕, 실수). 그럼에도 나라를 전복시키는 일은 안 됨.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 자체를 행한 적이 없다.
4.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빌라도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지만 그분은 세상의 모든 규례에 순종하고 십자가 처형까지 당하였다(13절).
5. 지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로마 제국 하에서 네로라는 사악한 왕의 지배를 받고 있다. 로마에 불을 내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 수많은 성도들을 죽인 악랄한 자, 그래도 13-14절에 따라 성도로서 마땅히 세상 권위에 순종해야 함.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 좋은 시민
6. 사도 바울의 고백: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이 의로 심판하신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걸려 옥에 갇힘.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의 고백(행25:8; 11),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수형을 당하고 죽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순교하였다.
7.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간 성도들의 기본 자세: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사도들의 본을 받아 세상 권위에 순응하며 살았다.
8. 그 이유: 나그네와 순례자(2:11), 예수님의 말씀: 내 왕국은 여기에서 속하지 않는다(요18:35-37).
9.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사는 이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나머지는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10. 교회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가 아니다.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불의와 비진리를 미워하지만 그것들을 무력으로 타파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영혼의 문제를 가장 크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경 신자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세상의 모든 규례에 순종해야 한다.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야 한다.

왜 국가와 사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해야 하는가?

A. 세상의 불신자들을 위해서(11-12)

1.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11).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자들로서 세상에서 좋은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
2. 나그네요, 순례자다. 즉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다. 여기는 외국이다. 외국에 가면 거기 시민들이 방문자, 순례자들을 유심히 살펴본다. 괜히 트집을 잡는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학대
3. 육체의 정욕들과 싸우는 군사들이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자들, 세상과 달라야 한다. 구원과 사람들처럼 정욕들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에 패하고 조롱거리가 된다.
4.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행실을 정직하게 해야 한다(12). 그래야 우리를 비방하다가도 돌아선다. 그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실을 본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지만 사람은 본다.
5. 12절의 '돌아보시는 날'은 재림의 때를 가리킨다. 그때에 이들이 우리에게 대해 증언할 것이다.

B. 주님을 위해서(13-17)

1. 성도의 의무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널리 전하는 것(2:9), 즉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고 있다. 우리의 행동 하나 하나가 하나님을 나타낸다.
2.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모든 규례에 복종해야 한다. 왕과 총독, 대통령, 장관, 시장, 군수 등
3.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다(15).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데 있지 않다. 좋은 시민으로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며 충성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4.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보라. 국가의 법이 그들의 믿음을 위협할 때 양심의 요구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지만 데모하고 반역자가 된 것이 아니다. 촛불 시위한 것이 아니다. 겸손하게 왕의 권위에 순종하였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사의 성도들, 로마 제국과 카톨릭 교회의 핍박을 받았지만 좋은 시민으로 법에 순종하며 살았다. 주님을 위해서
5. 그 이유는 무엇인가?(롬13:1-2).
6.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의 권력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딤후2:1-3).
7.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왕을 존경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17).

C. 우리 자신을 위해서(18-20)

1. 종들에 대한 의무: 로마 시대에 종들이 있었다. 주인이 있었다. 둘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경우 종이 자기 주인을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복종해야 한다(18).
3. 심지어 부당한 일을 당하여도 참아야 한다(19). 직장 생활에 얼마나 부당함이 많은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참고 이겨야 한다.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
4. 잘못하지 않았어도 참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20). 좋은 직장인/사회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 주셨다(21-25)

A.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은 우리의 본보기

1. 무언가를 새로 제작하거나 시작하려면 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잘 보여 주셨다(21).
2. 무죄한 가운데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다(22-23). 이 땅의 교회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긴다. 심판자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한다.
3. 죄인들을 위해 심지어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다(24). 십자가의 역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이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런 본을 보여야 한다.
4. 그 결과 길 잃은 양이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혼의 목자, 감독(25)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한다

- A. 1945년 8월 15일 해방,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창립,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과 하나가 될 수 없다.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하나가 될 수 없다. 호국보훈의 달, 목숨 바칠 각오

베드로전후서 강해 16: 남편과 아내의 행동 지침

성경말씀: 벰전3:1-7

지난 주 요약: <남편의 사랑의 의미>, 1. 남편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다. 나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므로 좋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희생으로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 주신 그 사랑, 2. 남편은 아내의 구원자다. 3. 남편은 아내를 성화시키는 자다. 4. 경제적, 영적 능력으로 가정을 이끌어야 한다.

현시대의 아이러니

6,000년의 인류 역사, 지금은 결혼과 가정과 성에 대한 정보가 넘쳐난다:남자와 여자, 결혼 카운슬링 이런 것이 넘쳐나는데 결혼과 가정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망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구원이 가정과 결혼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결혼에 성공하려면 노력해야 한다. 베드로는 불신 남편을 둔 자매와 크리스천 남편들에게 실제 교훈을 주고 있다. <남편과 아내의 행동 지침>

역할 모델(Roll model)

베드로는 이교도들의 사회에서 핍박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먼저 거룩히 살 것을 요청하였다 (1:14-16).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1:18-19). 썩지 아니할 씨 곧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1:23). 말씀으로 성장해야 한다(2:2). 너희는 놀라운 사람들이다(2:9).

이런 사람들로써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2:12).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 때문에 참으면 감사할 일이다(2:19). 여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이다(2:21-25).

요즘 가장 많이 유행하는 단어 중 하나가 롤 모델이다. “목사님이 저의 롤 모델이에요.”

누군가를 따라가면 그 사람 비슷하게 된다. 그래서 위인전, 영웅전을 읽고 성경을 읽는다. 요즘 사무엘기 상하, 사무엘, 사울, 다윗을 읽는다. 다 부족한 롤 모델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롤 모델로 예수님을 들고 있다.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분, 신분과 위치에 걸맞지 않게 가장 푸대접을 받았다. 전적으로 불신자들, 죄인들을 위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셨다.

우리가 이분을 우리의 롤 모델로 받아들이려면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한다.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한 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가정의 화평을 위해 지혜를 구하고 서로를 격려해야 한다.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1-6)

1절에서 베드로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와 같이’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를 뜻한다. 복종이 나오면 예수님의 복종을 생각해야 한다.

특히 베드로는 불신 남편과 살고 있는 자매들에게 권면하고 있다. 바울의 권면(고전7:12-13): 불신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지 말라. 심지어 불신 남편에게도 복종하라고 베드로는 두 번이나 말한다(1, 5절). 남편은 가정의 머리므로 불신자라도 아내는 창조 시 부여된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1. 복종은 아내의 의무이다(1-2). “내 자신을 남편의 권위 아래 두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군대에서 졸병과 대장이 있다. 졸병이 훨씬 더 인간성과 지혜가 나올 수 있다. 그래도 그는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그래야 전쟁에서 이긴다. 아내의 복종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자신을 내어 놓으셨다.

2. 복종은 기회이다. 아내의 복종은 심지어 불신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이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복종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권위에 복종하면 기회가 온다. 많은 경우 불신 남편들은 설교나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는다. 여기의 ‘말 없이’는 결코 ‘성경 말씀 없이’가 아니다. ‘아내의 말로 설득해서’가 아니라는 뜻이다. 성경 말씀을 듣게 하려면 행실이 바뀌어야 한다. 저녁에 설교 방송을 크게 틀어놓고 남편이 듣기를 기다리면 많은 경우 남편이 집을 나간다. 그러므로 남편을 변화시키려면 성품과 행실이 좋아야 한다. 논쟁으로는 안 바뀐다. 복종, 이해심, 사랑, 친절, 인내 등의 성품은 조작할 수 없다. 성령의 열매로 내부에서 나와야 한다.

a. 이것은 불신 남편, 아내, 자식, 친구들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3. 복종은 장식이다(3-4). 3절의 단장은 원래 뜻이 cosmos 즉 질서 있게 정돈된 우주를 뜻한다. 여기서 화장품을 뜻하는 ‘코스메틱’이 나온다. 베드로는 크리스천 자매들에게 외적 치장이 아니라

내적 단장에 치중해 줄 것을 부탁한다. 로마 시대 여인들은 파티 등에 신경 쓰면서 외적 단장을 매우 귀중하게 여겼다. 외적 단장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외적 단장은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은 항상 존재한다(3).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값지다.

4. 옛적의 하나님의 여인들도 그렇게 하였다(5-6). 사라의 예: 히브리서 11장에서 라합과 더불어 이름이 기록된 여인, 창12,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 이집트에 감. 사라의 미모로 인해 아브라함이 죽게 될 가능성이 생김, “내 누이라고 해라.” 파라오에게 끌려가서 남의 아내가 될 뻔함. 남편이 자기의 의무를 못했음에도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를 ‘내 주’라고 부름(창18:12). 이런 여인은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6).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7)

아내들에게는 6절, 남편들에게는 1절, 편파적이지 않는가? 그 당시 남자 중심의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아내가 누리는 자유는 너무 커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았다.

남편들에게도 ‘이와 같이’라는 말이 주어진다(7).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 주신 것 같이

1. 남편들은 지식에 따라 아내와 살아야 한다. 이 땅에서 남자들은 두 가지를 공부해야 한다: 성경과 아내.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아내의 마음을 읽는 것은 어렵다. 이것을 원하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저것을 원한다고 한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래서 들어주어야 한다. 결혼 전 카운슬링: 여자와 남자보고 상대방에게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라고 하면 여자는 적는데 남자는 적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결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결혼하는 커플이 대단히 많다. 지식이 부족하면 망하기 쉽다(호4:6). 그래서 아내를 연구해야 한다. 나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들어주어야 한다.
2. 동거해야 한다. 이 말은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같이 생각하고 생각을 나누어야 한다. 여자는 월급이나 집이나 차와 결혼한 것이 아니다. 아내의 부탁: “봄에 꽃구경 가자. 공원에 가서 걷자.” 시간을 내서 해야 한다. 그것이 함께 거하는 것이다. 좋은 영화도 보고 책도 같이 읽고 나누고, 많은 남자들이 승진, 명예, TV, 골프와 결혼한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동거가 아니다. 아내가 직업을 갖게 되면 가정 일을 도와야 한다. 그것이 동거하는 것이다.
3. 존중해야 한다: 여기의 존중은 여왕처럼 여기라는 것이다.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라. 그래서 아내가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게 하라는 것이다. 이런 존중은 아내를 이해하는 데서 나온다. 아내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도 예의를 갖추어서 해야 한다(테이트 시절에 하듯이).
 - a. 더 약한 그릇이다: 대개 여자는 남자보다 육체적으로 약하다. 올림픽 게임에서도 여자 남자 따로 한다. 대개 여자들이 영적으로도 약하다. 마귀도 여자를 유혹했다. 은사주의 현장에 가 보면 여자들이 먼저 넘어간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여자들은 그런 상태로 지어져서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갈비뼈로 만들어졌다.
 - b.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 오해하면 안 된다: 각자가 각자의 믿음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 측면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월등한 것이 없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여자와 남자의 구분이 없다.
4. 그래야 남편들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는다. 베드로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염두에 둔 채 이야기한다. 아내를 부당하게 대우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는가? 불신자들 중에서는 기도 없이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결론

1. 우리는 파트너인가? 경쟁자인가? 2. 서로를 돕는가? 3. 잠정적인 외적 패션을 의지하는가? 영원한 것들을 의지하는가? 4. 날이 갈 수록 더 이해하는가? 5. 상대방의 기분과 생각에 더 민감해지고 있는가? 6.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는가? 7. 우리의 결혼 생활이 서로를 풍성하게 만드는가? 가정과 결혼 시리즈 6개와 결혼 시리즈 5개를 들어보기 바란다. 하나님의 공해를 구하라.

베드로전후서 강해 7: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성경말씀: 벰전3:1-4

벰전3:1-7 가정과 결혼 시리즈 “남편과 아내의 행동 지침”

3:1-4 설명, 교회의 팽창, 옷차림 규제 설명 필요,

목사의 책무: 하나님의 모든 계획(행20:19-20, 26-27),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아이들, 청년들

옷차림 규제가 있는가?

대부분 교회는 무엇을 입든, 무엇을 하든 교회만 오면 된다는 논리를 편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널리 알려야 하는 존재(벰전2:9)

이런 면에서 성도의 겉모습도 대단히 중요하다. 내면만 바르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큰 오류이다.

기도, 찬양, 예배, 설교 등 모든 영적 생활은 내적/외적 요소들의 결합체이다.

공예배에서는 옷차림, 자세, 동작 하나 하나가 대단히 중요하다.

1. 모든 창조물 가운데 사람만 옷을 챙겨 입는다.
2. 성경은 옷으로 시작해서 옷을 끝을 맺는다(가죽옷, 아마포, 고후5:1-4).
3. 옷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수단이기도 하고 무언가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다.
4. 옷은 대화의 수단이다: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 무엇하는 사람, 출신인지 드러난다.
5. 책은 겉장으로 판단하지 못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옷으로 판단한다. 삼16:6-7, 고전14:23
6. 옷에는 위력이 있다: 경찰관, 인터뷰 복장, 군인 제복
7. 옷은 분위기에 따라 달라진다. 예배, 영화관, 직장, 운동, 그러므로 옷은 대단히 중요하다(의식주).

하나님의 백성과 예배 그리고 옷차림

성경은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책이다. 이 백성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노아 당시 8명,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히브리서 11장의 위인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사람들 교회(에클레시아)의 의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마16:18)

세상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려야 한다(롬12:2)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그분께 경배한다.

예배는 가장 존귀한 대상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며 가장 존귀하게 섬기는 것, 공예배, 사예배 모두 특히 공예배에서 우리는 주님을 공경하는 태도와 목소리를 가지고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위험, 은혜, 긍휼, 사랑, 아름다움, 거룩함을 드러낸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찌들었다가도 공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의 영이 활기를 얻는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1.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시29:1-2). 거룩함이 빠지면 예배 의미가 퇴색됨.
 - a. 자세, 동작, 옷차림, 말, 노래, 기도, 말씀 낭독, 설교, 광고까지도 거룩해야 한다.
 - b. 거룩함은 곧 세상과 구분되는 것이다.
2.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온다. 말라기의 백성과 제사장들, 하나님의 기대를 무시함(말1:6-7; 12-13)
3. 희생의 정신(막12:41-44), 과부의 이 렵돈, 힘들고 불편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신약시대의 예배

1. 과거에는 희생물을 바쳤으나 지금은 예배자가 희생물이다.
2. 입술의 찬양의 희생물을 드린다(히13:15). 영과 진리로(요4:23-24), 이것을 오용하면 안 된다.
3. 신약 시대는 성도 자체가 희생물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제사장이다. 더 엄중한 책무
4. 초대 교회 성도들의 기대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어떤가?
 - a. 토요일에 일찍 자고 현금도 새 돈을 준비하는 등
5.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이 받으시는 희생물이 되어야 한다(빌4:18).
6.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히12:28-29).

예배 복장

결혼식장에 추리닝, 운동화, 슬리퍼 신고 갈 수 없다. 최상의 옷을 입고 가야 한다. 그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예배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여성들은 복장에 신경을 써야 한다.

성경은 남성의 복장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 하지 않지만 여성의 복장은 여러 차례 이야기한다(벧전3:3-4; 딤후2:9-10). 왜 그런가?

남자는 보는 것에 약하고 여자는 듣는 것에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보는 것으로 인한 실족거리를 주지 못하게 하셨다(나체 사진 등, 마18:7).

이런 구절을 오용해서 여자는 화장하거나 장식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어불성설이다. 예수님도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꾸면 주신다(히고 고운 아마포 옷, 계19:8, 엡5:27; 시45:13-14).

여기의 요점은 단정하게 차려 입는 것 이상으로 외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단정함, 정숙함, 얌전함(shamefacedness)이다.

이 말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신부이므로

남자의 경우 정장이면 다 해결된다. 그러면 어떤 옷이 여성에게 단정하고 정숙하고 얌전한 옷인가?

많은 근본주의 성경 신자들의 답: 신22:5,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 치마가 아니면 가증함 No!

이 구절은 문맥에서 봐야 한다. 10, 11과 12절을 보면 혼방은 안 되고 또 옷에 술을 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가지고 치마를 입지 않으면 가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이다.

최초의 옷 사건: 처음에 아담과 이브는 벌거벗고 지냈다(창2:25). 죄를 지은 후 곧바로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고 앞치마를 만들어 입었다(창3:7-11). 이 앞치마는 벌거벗음을 가려주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쫓으면서 가죽 옷을 입혀 주셨다(가죽 코트).

핵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벌거벗음을 가려야 한다. 막5:1-15(특히 15절, 바른 정신, 옷)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 친족들과 성적 접촉을 하면 안 된다(레18:6 이후). 벌거벗음을 드러내므로 특히 여자는 벌거벗음을 자기 남편에게만 드러내야 한다.

어느 정도가 벌거벗음의 기준인가? 아담과 이브의 가죽옷 길이가 어느 정도였을까?

출28:42의 제사장 규정

사47:1-3, 여인의 수치를 드러내기 위해 치마를 걷어 올리는 모습, 넓적다리까지 올리면 벌거벗은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는 여자의 넓적다리가 보이는 옷은 벌거벗은 것으로 간주된다.

자매들은 무릎 이하로 내려가는 옷을 입는 것이 합당하다. 미니스커트 No(마5:28의 음욕)

대화 시 남자에게 욕망을 일으키지 않는 수준, 땅에까지 닿는 치마 불필요.

그러면 꼭 치마여야 하는가?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사용하여 판단하게 하신다.

고전11: 남자와 여자의 머리 문제, 여자는 길게, 남자는 짧게, 본성도 남자의 긴 머리는 아니라고 한다

(14). 여자의 긴 머리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이면 된다.

남자와 여자의 옷도 본성적으로 알 수 있다: 전 세계 모든 화장실, 말은 달라도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로 표기가 되어 있다. 본성을 고려할 때 여자는 치마를 입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 꼭 치마를 입어야만 하는가? 성경의 답은 “아니다.”이다. 바지를 입어도 된다. 다만 단정하게 얌전하게 입어야 한다. 여기서 얌전함은 여성의 신체 형태를 드러내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음욕).

그러므로 여자의 몸의 형태를 드러내지 않는 수준의 적당한 바지는 허용이 된다.

단정하다는 것은 적절하다는 것이다: 운동, 등산, 카누 등을 할 때는 여자도 운동 바지를 입어야 한다.

치마면 다 되는가? 아니다. 몸을 조이는 치마는 바지보다 못하다.

남자는 양복을 입고 여자는 치마를 입으면 영적인 사람인가? 외적 모습은 영성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다만 내적으로 영이 단정한 사람은 외적으로도 그것이 표출된다(눅6:45).

결론

우리 교회의 옷차림 기준: 공예배에서 남자는 정장, 칼라 있는 셔츠, 여자는 무릎 이하의 치마나 바지,

다만 예배 때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정장, 치마(주의 만찬, 찬양, 기도, 말씀 낭독, 안내 등).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거리를 주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베드로전후서 강해 10: 그리스도인의 행복 비결

성경말씀: 벰전3:8-17

한국이든 미국이든 오순절/은사주의가 맹위를 떨친다. 핵심: 큰돈 현금하고 교회를 위해, 목사를 위해 충성하면 현세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 과연 그럴까?

나 역시 나를 포함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늘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현세의 복을 충만히 받기 원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의 복의 내용이 현저히 다르다는 것이다.

구약은 땅의 백성, 땅의 복, 신약은 하늘의 백성, 하늘의 복

구약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을 저주로 보았다. 모세 오경 등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 다만 영의 눈이 열린 믿음의 사람들만 구약시대에 살면서도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하늘의 도시를 바라보며 고통과 고난을 이겨냈다. 누구 하나 핍박과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받은 성도가 이 시간 땅의 복도 받기를 원하신다.

특히 지금처럼 순교 당하는 때가 아닌 때에는 더더욱 땅의 복도 받으면 좋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가끔씩 땅의 복을 누리려 비결이 나와 있다. 오늘 읽은 벰전3장이 그중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복을 주시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을 알려주신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는 돈/재물 등을 가지고 와서 복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 그분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복의 비결이라고 말한다.

이 비결을 잘 따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장수할 수 있다.

9-11절 읽기, <그리스도인의 행복 비결>, 특히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

교회 안에서(8)

성경대로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딤후3:12).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

한 마음: 한 믿음, 한 성경, 한 교리에서 나온다.

형제로서 사랑하고 동정하라.

성경에 비추어서 “나는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의 바르게 행해야 한다. 말을 놓지 말라

불신자들에게(9)

세상 사람들에게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축복하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마5:43-48).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신다.

샘 존스 목사 집회, 노름꾼의 간증, 그리스도인 아내와 결혼. 아내의 권유에도 듣지 않음.

다른 노름꾼과 함께 11시에 노름판에서 나옴. 커피가 먹고 싶다. “내 아내가 끊여 줄 것이다.”

“어떻게 천사 같은 부인이 마귀 같은 내 친구와 삽니까?”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제 남편은 이제

영원토록 지옥에서 불행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라도 제가 행복하게 해 주어야지요.”

남편의 회개

이렇게 하면 영원한 복을 상복 받는다. 이게 복 받는 비결이다.

베드로전서의 실제적 교훈: 말이 아니라 행실로 구원시켜야 한다(3:1).

행복한 삶을 살려면(10-11)

성경에 나오는 장수의 비결: 엡6:1-3

벰전3:10-11은 일반적인 규칙을 말함, 이것은 원래 다윗의 시편(34:11-16)

삼상16장,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죽임, “천천, 만만”, 이때부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함. 가장 가까운

사울에게서 핍박이 들어옴, 왕의 사위가 됨, 그의 딸과 아들이 다윗을 보호함,

삼상21:10-15, 사울의 추격을 받다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감, 아기스(이름), 아베멜렉(호칭),

살아남기 위해 미친 채 하면서 경멸의 대상이 됨. 이 정도로 성도가 핍박받는 경우가 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다윗은 교훈을 주려고 이 시편을 기록하였고 베드로는 로마의 압제 하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다. 즉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

34:11, 왕이 된 이후에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려 함.

다윗의 삶의 특징: 주를 두려워하는 것, 베드로도 같은 마음으로 격려하고 있다.

12절,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장수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나쁜 것이 아니다.

13-14절은 벤전 10-12와 같다.

1. 혀를 조심해야 한다(10, 약3:2, 5-12, 잠18:21). 교회에서, 사회에서의 다툼이 많은 경우 혀로 인해 생긴다. 혀의 말다툼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한다(시31:20). 다윗의 시
2.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라(10), 특히 목사들은 조심해야 한다. 숫자를 늘리거나 거짓 보고 No!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만을 말하리라고 다짐하라(엡4:15).
3.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11). 청년들이 음행/주초를 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시25:7). 나무와 못
4. 모두의 유익을 위해 화평을 구하고 따르라(11, 롬12:18). 심지어 부부의 갈등(고전7:13-15)
5. 주님의 눈은 의로운 자들을 내려다보신다(12). 여기의 의인은 의롭게 사는 자를 뜻한다.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들이 있다(약4:4). 행복하게 장수하려면 의롭게 살아야 한다.
6. 이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12). 응답 받는 기도의 핵심: 의롭게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
7.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신다(12). 이것을 기억하고 피하라.
8. 그렇게 살면 불신자들도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13). 바울이나 다니엘 등과 같은 예외도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법칙이다.
9. 그런데 선하고 의롭게 살다가 예수님과 천국과 지옥을 증언하며 말씀을 전하면 돌아서는 이들이 많다. 이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14). 약5:11의 위로, 히13:6, 이런 경험이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된다(고후1:3-5).
10.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분하라(15).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주인 대접하라.
11. 소망의 이유를 답하기 위해 예비하라. “예수만 진리냐? 종교는 다 같지 않냐? 킹제임스 성경, 침례 등의 좁은 길을 가느냐? 너만 잘 믿느냐?” 성경대로 답하여야 한다.
 - a. 우리의 상태(죄와 죄들), 번민과 고민, 양심의 찢림
 - b. 내 힘으로 혹은 다른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
 - c.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창조자만 해결하신다.
 - d. 사람이 되어 오셨다. 복음, 단번 속죄
 - e. 은혜로 믿음을 통해 저저 영원히 얻는다.
 - f.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부활과 휴거에 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 g. 복음의 언어인 침례를 행한다.
 - h. 성경대로 하려고 노력한다.
 - i. 바로 그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보존하신다.
12. 이 모든 대답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야 한다.
 - a. 베드로는 구원받은 이후의 선한 행위를 무엇보다 강조한다.

결론

하나님은 국가의 제도적 핍박이 없는 평화의 때에 보편적인 방법으로 모든 성도들이 땅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목사로서 나도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멀리하라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말조심, 행동 조심, 하나님 대접하기, 온유하게 대답 예비

이런 보편적인 법칙의 준수를 통해 땅에서의 행복이 온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베드로전후서 강해 ㄷ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후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다룬다. 특히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고난이 있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

- 13절: 선한 것을 따르면 원래는 해할 자가 없어야 한다.
 - 14절: 그러나 의로 인해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다(마5:3, 6, 10-12). 이 경우 우리는 행복한 자다.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 15절: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하게 대답하라.
 -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딤펬전1:5, 19-20,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작동하지 않으면 타락하여 멸망한다.
 - 17절: 잘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
- 우리 성도들 킹제임스 성경, 신약 교회, 은혜 구원, 환난 전 휴거, 이것들을 외치면 고난이 온다. 바울, 구원받기 전에는 No problem,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자 죽음이 그를 따라다님. 마귀가 미워함.

그리스도의 고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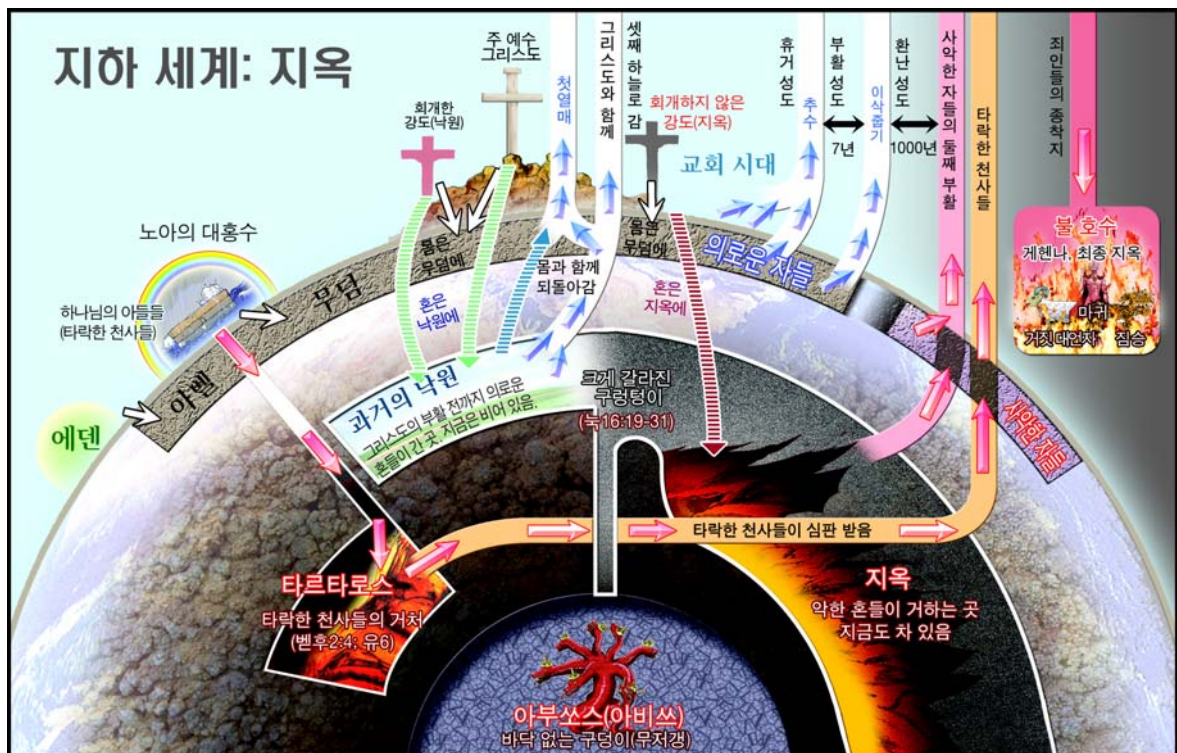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그리스도께서도 몸소 고난을 당하셨다(히12:2).

18절: 그리스도의 단번 대신 속죄,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한 번 고난을 당하심. 신구약성경의 핵심, 복음의 핵심,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려고.

복음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롬10:9-10)

19-20절: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그리스도의 사역

- a. 주님의 말씀(마12:38-40), b. 주님의 십자가 처형 아마도 수요일 혹은 목요일
- c. 예수님의 몸은 부자의 무덤에, 영은 아버지께, 혼은 지옥에, 그러면 그분의 혼만 가시는가? 사람이 죽으면 몸은 무덤에, 영은 하나님께(전3:19-21, 여기서 영은 숨이다), 혼은 천국이나 지옥에, 이렇게 된다고 해서 죽음 이후에 영과 혼이 분리되는가? 아니다. 사람은 영과 육과 혼이 있어야 사람이다. 여기서도 천국에서도, 지옥에서도. 눅16장의 아브라함, 나사로, 부자 모두 전체적으로 인간이다(영과 육과 혼, 다만 여기서의 몸은 최종의 몸이 아니라 중간 단계의 몸이다). 우리 예수님도 전체 인격체로 지하 세계에 내려가셨다.
- c. 행2:23-32(시16:8-12)
- d. 구약의 지하세계(넓은 의미의 지옥)는 아브라함의 품, 구렁텅이, 지옥, 타락한 천사들의 거처로 구성되어 있었다. 좁은 의미의 지옥은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고 타르타로스는 노아 당시의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곳이다(벧후2:4). 이곳은 노아 당시 타락한 영들(20절)이 있는 감옥이다.



- e. 창6:1-4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욥1:6; 2:1; 28:7). 이들은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버리고 처소를 떠나 땅에 내려와 타락하였다(유6). 거인 종족을 생산하였다.
 - f. 우리 주님은 성령님의 파위를 힘들어 지하 감옥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다. 19절에서 '선포하다'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복음을 선포하다는 의미의 '유앙겔리조'가 아니라 선언하다는 의미의 '케뤼소'이다. 그러므로 그 영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다.
 - g. 천주교회는 이 감옥을 연옥이라 해석하고 영들에게 다시 복음이 선포되어 둘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해석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 h. 영어, 원어, 천주교의 사도신경에는 'He descended into hell'이 있지만 개신교 것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 없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분께서 저승에 갔다고 버젓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 i. 개신교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 j. 천주교 사도신경: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저승(고성소)에 내려가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고성소: 착하게 산 구약의 성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던 곳
 - k. 원래대로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로 해야 한다. 개신교는 연옥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빼 버림. 영어에는 그대로 남아 있음.
 - l.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약속하신 대로 낙원에 즉 지하세계의 지옥 부분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셨음을 보여 준다.
 - m.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4장 8-10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 n. 둘째 기회가 주어지는가? No!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9:27)
 - o. 연옥: 카톨릭 교리에서 연옥은 천국으로 가기에는 자격이 부족하지만 지옥으로 갈 정도의 큰 죄를 짓지 않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머무르는 곳이다. 영혼들은 연옥에서 보내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이승에서의 죄를 씻고 정화한다. 연옥이 정죄계(淨罪界, 깨끗함과 죄 사이의 경계)나 정화소(淨化所, 깨끗해지는 장소)로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p. 연옥은 없다. No! No!
- 20절: 이 영들은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던 영들이다. 모든 시대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아니다.
- a. 방주 안에서 물에 의해 구원받은 자들은 8명이다.
 - b. 120년 동안 노아가 의의 선포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였으나 아무도 믿지 않음(벧후2:5).
 - c. 물은 모두를 멸절시켰지만 오히려 물에 의해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다.
- 21절: "침례가 우리를 구원한다." 맞는가? Yes and No! 성경은 앞뒤 문맥을 잘 보고 해석해야 한다.
- a. 물 침례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 어떤 종교 행위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 b. 여기서는 그냥 침례가 아니다. 그 일과 동일한 모형(figure)인 침례이다.
 - c. 그러면 그 일은 무엇인가? 물에 의해 구원받은 일, 모형은 figure이다. 사과 3개, 수자로 3이라고 쓴다. 3은 사실 사과가 아니다. 사과 세 개가 진짜 사과이다. 침례는 수자 3과 같고 그 일의 실체는 죽음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노아니 물이 사람을 구원했듯이 사실 죽음이 그분을 승리하게 만들었다. 바로 이 일의 모형이 곧 침례이다.
 - d. 침례의 가장 큰 의미는 그분과 동일시되는 것이다. 눅12:50, 침례는 1차적으로 죽는 것이다. 묻히는 것이다, 부활하는 것이다.
 - e. 그래서 베드로는 침례를 가리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고 함. 그러므로 여기의 침례는 물 침례가 아니다. 예수님과 동일시되기 위해 반응하는 것이다.
- 22절: 그 결과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시110:1) 모든 영적 존재들이 그분께 복종한다.
- 결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영광을 얻으셨다(빌2:5-11).
-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갚아 주신다.

베드로전후서 강해 10

베드로전서 4장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특히 시간 관리, 1-11)

성도가 영원에 관심을 둔다면 지금의 이 짧은 시간(육체 안의 남은 때 2절)을 바르게 쓰려고 노력해야 한다. 보상의 심판이 있다. 성화에 신경을 써야 한다. 구원이 끝이 아니다.

1절: 죄에 대해 전투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나이아가라 폭포 이야기, 죄를 용인하면 곧바로 죄의 노예가 된다.

그래서 죄에 대해 전투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죄에 무감각한 크리스천은 마귀의 도구 예수님이 하신 일, 죄 문제 해결, 몸소 죄의 본질을 보여 주심(여자를 보고 간음하는 것, 십일조를 하면서 판단의 공의, 긍휼, 믿음 무시), 죄와 죄들의 차이, 그리고 죄가 되어서 죄를 완전히 정복하심, 이를 위해 고난당하심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죄를 그치는 것, 이 삶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목표를 삼아야 한다. 죄를 미워하는 태도, 성화(롬6:3-7)

고난이 죄 짓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파라오). (우리 안의 그리스도)로 인해 믿음으로 고난당하라.

2절: 육체 안의 남은 때(긴 때, 짧은 때), 사람들의 정욕(3절의 이방인들의 뜻) 혹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악용하면 사람의 정욕을 채우는 일이 생긴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마음에서 나온다(시33:11).
거룩함

3절: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라. 이스라엘은 한때 노예였다(신5:15). 바울은 신성모독하는 자(딤후1:12)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 이 세상(요일2:15-17)

4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다. 가정 폭력, 붕괴, 이혼, 테러, 살인, 사기 등을 모두 가볍게 여긴다(창6:12-13).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긴다(잠 1:8-16).

5절: 결국 이들은 회고 큰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계20:11-15).

6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 모든 것을 회개 보고해야 하므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들깨 기회를 뜻하지 않는다(히9:27).

이들은 베드로 당시에 구원받고 죽어 있는 자들, 그들은 육신으로는 사람들의 판단을 받고 고난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2,3절과 비교).

7절: 임박한 재림, 고전15:51-52의 '우리', 딤후4:8

임박한 재림으로 인해 적어도 10개의 명령을 준다.

1. 정신을 차리라(7). 2. 깨어 기도하라(7). 3. 뜨겁게 사랑하라(8), 4. 대접하라(9). 5. 청지기로서 섬기라(10-11), 6. 이상히 여기지 말라(12), 7. 기뻐하라(13), 8. 부끄러워하지 말라(16), 9.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16-18), 10. 하나님께 맡기라(19).

정신을 차리라: 술 취하지 말고 신중하라. 목사의 자격(딤후3:2), 성도들(딤후2:1-6), 이것이 부족하면 이단, 사이비, 평생 속박에 빠진다(벧전5:8). 특히 재림 관련해서, 천국지옥 예언 그러면 깨어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나라와 민족과 불신자 구원과 영적 침체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밤12시에 깨어 있으면 안 된다. 경계심을 가지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 영광 육과 혼이 정신을 차린다.

8절: 재림을 기다리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 뜨겁게 사랑한다. 옆의 성도에게 관심을 두라.

내 아내의 사고, 임 자매 어머니 장례식,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 용서하게 만든다.

9절: 잘 대접한다(목사). 우리 교회는 잘 대접해야 한다(방문자, 다른 교회 목사, 선교사). 히13:2

10절: 청지기로서 섬겨야 한다. 청지기, 모든 사람에게 섬길 것을 주셨다(롬12:3-8; 고전12:4-11).

교회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고전12:27). 27-30 설명

모두가 잘 섬겨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베드로전후서 강해 11

베드로전서 4장

10-11절: 청지기로 섬겨야 한다.

1. 청지기의 태도(고전4:1-2),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계4:11).
2. 모든 사람에게 섬길 것을 주셨다(롬12:3-8; 고전12:4-11).
3. 교회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고전12:27). 27-30 설명

고난과 비방을 대하는 태도

12절: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

1.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2,000년간의 교회 시대에 많은 고난이 있었다(히11:33-38).
2. 고난의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다(고후6:14-18).
 - a. 가인과 아벨(창4:1-8; 요일3:12)
 - b. 종교인들과 그리스도(마10:17; 요16:2; 16:33)
 - c. 마귀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해 왔다(욥기).
3. 이런 핍박은 종종 불로 표현되었다(욥23:10; 벧전1:7).
4. 모든 시련이 성도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5. 사람이기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전10:13).
6. 불순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벧전2:18-20; 3:13-17).
7. 여기의 불같은 시험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고후1:8-9). 바울

13-14절: 이런 고난은 기쁘게 당해야 한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1.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빌1:29; 3:10; 행5:41).
 - a. 주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계셨다(단3:23-25).
 - b.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계셨다(행23:11; 27:21-25; 딤후4:9-18).
 - c. 주님의 약속(마28:20)
2. 고난은 미래의 영광을 뜻한다(벧전1:6-8). 눅24:26이 핵심이다.
 - a. 하나님은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다(요16:20-22; 고후4:17-18).
 - b. 인생에서도 고난이 미래의 영광을 보장한다. 피아노 바이올린 연습, 공부, 성경 읽기 등
3. 고난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14).
 - a. 이런 고난은 그분 때문에 받는다(요15:21).
 - b. 그리스도인(벧전4:16; 행11:26; 26:28)이라고 말할 때 받는다.
 - c. 원수들이 붙여 준 이름이다. 고난을 뜻한다(행5:41).

우리의 삶을 점검하자(15-19)

고난당할 때가 삶을 점검하기 좋은 때다: 불 같은 고난을 통해 악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

스가랴 13장의 고난(슥13:8-9; 말3:1-3),

벧후3:7, 10-12의 세상 정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먼저 교회(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화가 있다(17).

성경의 심판 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크고 흰 왕좌 심판(17절 정체 의미)

구약 시대 이스라엘 심판 시, 먼저 예루살렘부터

에스겔서 9장 설명 :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 예루살렘 심판,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불러 마크함(4), 그리고는 여섯 사람이 표가 없는 자들을 죽이는데 그 일이 성소에서부터 시작됨(5-6).

1. 왜 고난당하는가 살펴보라(15절).
 - a.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등도 불순종으로 인해 고난당하였다.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2.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당하는가?(16절), 그리스도인과 고난은 연결되어 있다(딤후3:10-12)
 - a. 마5:11-12

- b.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멸시하시고 담당하셨다(히12:2).
- 3. 불신자를 구원시키려고 노력하는가?(17-18절)
 - a. 신자들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다(살후1:7-10; 2:8-12; 잠11:31).
- 4.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라(19절). 딤후1:11-12
 - a.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보화이다.
 - b.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당하는가?
 - c.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제공하신다(마6:24-34).

베드로전후서 강해 1권

베드로전서 5장

목사와 성도(특히 젊은 성도)의 관계

목사에 대한 권면(1-4)

성경은 감독과 장로와 목사가 같은 직무 수행자임을 보여 준다.

딤후1:5-7(딤후3:1-7과 동일함), 행20:17, 28

감독(Episcopos, 감독하는 자, 직무의 의무), 장로(Presbuteros, 치리하는 자, 직무의 위엄), 목사(Poimen, 목자, 직무의 목적)

처음에는 유대교의 영향으로 교회의 치리자를 장로라 불렀지만 이방인 교회가 형성되면서 감독(bishop)으로 부름(딤후 4장 끝 참조).

시간이 지나면서 카톨릭 교회의 감독이 주교가 되면서 성경의 감독과 다른 양상을 띠게 됨
그래서 성경 신자들은 감독을 목사라고 부름(엡4:11). 사실 감독은 목사 겸 교사이다(행20:28).

천주교는 priest, 성경적인 교회는 pastor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나오면서 Reverend라 부르기 시작함(Rev. 시111:9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다).

목사는 직무 수행자이다: Office 설명(딤후3:1), 누군가가 부여하는 것이다. 부여한 권위가 허락하지 않으면 더 이상 Officer가 될 수 없다.

목사의 목적: 교회를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

목사는 교회의 영적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엡4:11-16)

목사의 필수조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시면(call) 교회가 임명하고(ordain) 성령님께서 그들을 그 직책으로 구분하신다(행13:1-4).

원함이 있어도 부르심이 없으면 목사가 될 수 없다. 부르심이 없는 목사는 불행하다.

부르심 이후에(혹은 부르심과 함께) 준비가 필요하다: 사권을 통해서(바울과 바나바), 목회자를 통해서(바울과 디모데)

목사의 자격: 딤후3:1-7, 딤후1:6-9

1절: 장로들에 대한 권면, 장로 곧 목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영광에 참여할 자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는 자, 즉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확실히 아는 자

2절: 목사의 의무는 말씀으로 먹이고(행20:28) 감독하는 것

1.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말씀 상고와 설교와 가르치는 것이다.

그 외의 것은 부차적인 것이며 교회의 다른 사람들이 대신 할 수 있다.

2. 목사는 경계하고 보호하는 감독자이다.

목사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 양떼를 보호해야 한다(행20:29-30).

목사는 자신, 교회, 종교적인 이리떼들, 이단들, 잘못하는 자들을 늘 주의 깊게 살피고 또 병든 자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3.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양들을 인도한다.

먼저 본을 보임으로 한다.

4. 반드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양들이 이끌고 나가는 교회는 성경에 없다.

목사는 독재자가 아니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인도자이다(고후1:24).

5. 목사의 자세

자진해서 해야 한다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교회는 마땅히 사례를 해야 한다(고전9). 그러나 적당한 사례이어

야 한다.

준비된 마음으로 한다. 업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

3절: 왕처럼 군림하지 말라.

신약 교회에서 목사의 독재란 있을 수 없다(눅22:24-26).

양 떼에게 본이 되라(딤후3:4-7). 가정 생활

4절: 오직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한다. 그것은 성도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다.

영광의 관이 목사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교회의 흥망성쇠는 목사에게 달려 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은 대언자들과 제사장들의 부패 때문이다(사56:10-11)

신약시대에 구약의 제사장 노릇을 하려는 목사들이 가장 큰 문제이다.

한편 교회는 목사의 지도력에 순복하고(히13:17)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의 필요를 채워 주고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살전5:13).

젊은 성도에 대한 권면(5-6)

5절: 성도들은 세상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벧전2:13-17). 좋은 주인에게(2:18-25), 자매는 남편에게(3:1-7).

교회에서 젊은이들은 혹은 초신자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이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딤후3:6).

여기의 장로는 꼭 목사만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잠6:16-17; 8:13).

사람을 올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신다(시75:6).

다윗의 예, 20대 전후부터(아마도 17세 정도) 30세까지 고난

요셉 17세에서 30세

모세 41세에서 80세

그러므로 특히 젊을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해야 한다.

베드로전후서 강해 13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의 유언,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

지난 주(1-6): 목사와 젊은 성도 관계, 이번 주(7-14) 염려, 마귀, 하나님의 계획, 문안 인사
염려 문제(7)

7절: 모든 염려를 영원히 그분께 맡겨라.

산상수훈 마6:25-34

베드로만큼 하나님이 모든 염려를 해결해 준 것을 본 사람도 없다.

1. 장모의 열병(막1:29-31), 2. 많은 물고기 수확(눅5:1-11), 3. 공세(마17:24-27), 4. 물에서 걸음(마14:22-33), 5. 말고의 잘린 귀 해결(눅22:50-51), 6. 예수님 세 번 부인(요 21:11-19), 7. 감옥에서의 구출(행12) 등
2.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네 가지 선물
 - a. 용기(사41:10), b. 지혜(약1:5), c. 힘(빌4:13), d. 믿음(시37:5-6)
3. 그래서 우리는 시55:22를 믿는다.

8-9절: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다.

1. 사탄: 대적하는 자(왕상11:14의 하닷은 솔로몬의 대적; 시109:6),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런 의미로 꾸짖으셨다(마16:23; 막8:33)
 - a. 마귀: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자, 비난하는 자(욥1:1-12, 2:1-6, 슥3:1-5, 계12:9-10)
 - b. 일: 그는 사람들을 유인하여 죄를 짓게 하고(대상21:1의 다윗의 인구조사; 눅22:31) 따라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육신적 도덕적 죄의 창시자이며 특히 각종 재난 특히 죽음까지도 가져오는 악한 성향을 만드는 장본인이다(눅13:16의 18년 동안 병에 걸린 여인; 히2:14). 그러므로 사탄은 사람을 부추겨 죄를 짓게 하고 또 기독교를 가로막는 모든 방해 요소의 근원이다.
 - c. 루시퍼(사14:12-20; 겔28:11-19)
 - d. 그는 뱀으로서 속인다(고후11:3).
 - e. 그는 사자로서 삼킨다.
2. 마귀를 물리치는 법
 - a. 그는 위험인물이다. 가볍게 대하지 말라: 능력과 지혜가 뛰어나다(예수님도 경배하게 함). 즐거들인 마귀들이 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심지어 미가엘도 하나님께서 그를 처분해 주시도록 하였다(유8-9). 그러므로 모든 것(병, 고통, 어려움 등)을 마귀에게 돌리지 말라.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sober).
 - b. sober 12회, sobriety 2회: '술 취하지 않은, 말짱한, 냉철한, 맑은'이라는 뜻. 개역성경은 이것을 번역하지 않고 건너뛰거나 대충 번역해 놓았음.
 - 1)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딤후2:2, 흥정역)
 - 2)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딤후 2:2, 개역)
 - 3) 딤후3:2 목사와 집사의 자격 중 하나 '맑은 정신을 가지며'(신중하며, 절제하며)
 - 4) 여기도 근신하며(별로써 몸과 행동을 조심하며)로 되어 있음
 - 5) 맑은 정신이 없으면 성경을 바로 보기 어렵다(물에 술 탄듯, 술에 물 탄듯)
 - 6) 판단을 못한다. 믿음 생활에서는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 7) 현 시대 구분이 안 된다: 교황과 천주교, WCC, 땅굴 12월 전쟁설
 - 8) 잘못하며 이단에 빠져 평생 고생한다. 9) '맑은 정신, 따뜻한 가슴 침례교회'

- c. 그는 거짓말과 변장에 능하다(요8:44; 고후11:13-15). 그래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1) 좋은 씨(알곡)와 가라지 비유(마13:24-30, 36-43)
- 2) 말씀과 성령님이 없으면 누구라도 속게 되어 있다.
- 3) 그래서 모든 영을 시험해야 한다(요일4:1-6).

d. 그를 대적해야 한다(저항해야 한다).

1)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로 그와 싸워야 한다(엡6:10-13). 전신갑주

2)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다(마4:1-11). 오직 말씀으로

e. 서로 기도해야 한다. 이 싸움은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3. 베드로는 과거에 이런 것을 몰라서 마귀에게 여러 차례 당했다.

- a. 마16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마16:21-23), b. 겐세마네에서 말고의 귀를 자름(눅 22:50-51), c.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예수님을 부인함(마26:69-75)

4. 야고보도 같은 교훈(약4:7), 5. 주님을 대적하면 마귀에게 진다.

10절: 소망을 가져라.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21세기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움: 불 같은 시련(벧전1:7).

끝으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며 관장하고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줌

- 1. 하나님의 은혜, 2. 영광으로 부르심, 3. 잠시 동안의 고난(고후4:16-18)
- 4.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정착시키신다.

11절: 하나님께 영광

12절: 실루아노=실라, 예루살렘의 제자들 중에서 주요 인물(행15:22; 고후1:19). 유대인들의 할례 의식을 지키는 문제로 안디옥에서 논쟁이 일어나자 바울과 바나바는 선택되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의 의견을 듣게 되었고 그들은 오는 길에 유다와 실라를 데리고 왔다. 뒤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뒤에 실라는 바울에게 연합하였다(행15:37-41). 그는 바울과 함께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교회들을 방문하고 루가오니아, 브루기아, 갈라디아, 마케도니아의 마을들을 방문하였다. 그는 그와 함께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고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고린도에서 그를 만나 고후11:9; 빌4:10, 15 등에서 언급되는 기부금을 가져왔다. 그는 또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다(행16:19, 25; 17:4, 10, 14; 18:5; 살전1:1; 살후1:1). 그는 항상 실실한 형제로 나타났으며 주님의 교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후1:19; 벧전5:12).

13절: 바빌론의 교회: 'church that is'는 이탤릭체로 삽입됨, 실제 바빌론으로 보는 견해: 많은 유대인들이 유프라테스 근처에 살았다. 로마를 나타낸다고 보는 견해

마가: 마가복음의 기록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행12:12, 25; 13:5, 13에 나오는 요한 마가 즉 바나바의 생질(누이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골4:10). 그는 바나바와 바울이 그리스를 통과하고 안디옥, 벵가, 밤빌리아에 이르는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들과 함께 하였으나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바울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행13:13; 15:37-39). 그럼에도 그는 키프로스에서 바나바와 함께 신실하게 사역을 하였고 바울은 로마에서 옥에 갇혔을 때에 그가 자기와 함께한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그를 맞이하라고 말했다(골4:10-11; 딤후4:11; 몬24). 그는 후에 베드로와 함께 바빌론에 갔다. 그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마리아의 아들이었는데 사도들이 그 집에 자주 들렀으므로 베드로에 의해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를 아들이라고 부른 것 같다(벧전5:13; 비교 딤후1:2; 딤후1:2).

14절: 사랑의 입맞춤은 그 당시 풍습(지금의 악수), 평강의 축복 인사, 바울은 대개 끝에 은혜의 축복 인사를 하였다(빌4:23; 골4:18 등). 성도들의 고난을 생각하며. 또 특히 히브리 성도들에게는 살롬이라는 평강의 인사를 생각하며.

베드로전후서 강해 14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의 유언, 후서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know, knowledge)이 적어도 13번 나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그 진리대로 사는 것(요17:3)을 뜻한다. 1장 첫 부분은 믿음, 성장, 결과
믿음(1-4)

1절: 전서에서는 단순히 베드로, 후서에서는 시몬(모래) 베드로(돌, 요1:42)

전서에서는 단순히 사도, 후서에서는 종이요 사도,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다(고후4:5; 눅17:9).
사도의 뜻: 파송받은 자

보배로운 믿음 공동 소유: 사도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비록 그들이 주님과 함께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차별이 없다. 특히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 아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딤후2:10; 3:4)

구원자(Saviour): 벵후1:11; 2:20; 3:2, 18 등(구세주 비교)

구원(salvation): 어려움, 원수, 병마, 사망에서 구출해 주는 것

예수님은 (1) 사람 영혼의 병의 의사. (2) 죄와 사망과 사탄과 지옥에서 우리는 구출하는 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결과 그분은 의(고후5:21; 딤후3:5)를 값 주고 얻으셨다. 우리 의가 아니다(롬10:4).

2절: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평강: 하나님과의 화평(롬5:1), 하나님의 화평(빌
4:6-7), 그런데 은혜와 평강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커진다.

3절: 우리의 목표는 영광과 덕이다. 영광(롬8:29; 요일3:2)은 미래 목표, 덕(경건한 삶)은 현재 목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이끄시며 그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신성한 권능(마28:18; 엡1:19-22의 부활의 권능, 창조, 재림 및 휴거의 권능)

믿음, 구원, 주님을 더 많이 알, 하나님의 권능 경험, 이 권능이 생명과 그분의 성품을 생산함
구원 이후의 이 모든 과정을 성화라고 함

죄와 범법 가운데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곧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심.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벽함(골2:10).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무언가를 특별히 더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베드로는 다른 것이 불필요하다고 함. 아기는 젖과 음식만 먹으면 자란다.

4절: 그것들(영광과 덕 혹은 3절의 모든 것)로 인해 큰 약속들이 주어졌다. 말씀을 통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할 수 있게 해 주셨다.

보배로운 약속들: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의 아들딸(요1:12), 부활(롬10:9), 공동
상속자(롬8:17)

베드로는 보배롭다는 말을 많이 쓴다: 믿음(벵후1:1), 약속(벵후1:4), 피(벵전1:19), 보석(벵전
2:4, 6), 구원자(벵전2:7)

이 세상 것들의 특징: 부패, 무질서, 부패의 원인은 정욕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계서 말씀을 사용해서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을 제공하신다.

아기가 부모의 성품을 공유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한다.

본성은 식성을 결정한다. 개와 돼지와 양의 식성은 다르다(벵후2:22).

본성은 또한 행동을 결정한다. 독수리와 돌고래의 움직임은 다르다.

본성은 환경을 결정한다. 다람쥐, 두더지

본성은 모임의 형태를 결정한다. 사자, 양, 고기 떼, 등산회

구원받은 사람은 본성에 따라 순수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 추구할 수밖에 없다.

행동, 환경, 모임 형태도 자동으로 결정된다.

영적 성장(5-7절)

5절: '이것과 더불어'의 이것은 구원받는 것 혹은 믿음을 가진 것

생명에는 성장이 있다. 구원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며 그 뒤로 자라야 한다.

영적 성장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빌2:12-13).

베드로는 경건한 삶의 일곱 특성을 나열하는데 이것들은 꼭 순서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다.

'더하라'는 말은 풍성히 제공하라는 말이다.

성령의 열매처럼(갈5:22-23) 이것들은 생명에서 나온다. 여기에 성도들의 경건 생활이 함께해야 한다.

5절: 이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해야 한다(단순히 예배 참석이 능사가 아니다).

1. 덕: 뛰어난, 어떤 것이 사명을 다하면 덕이 있다. 땅은 곡식과 열매를 내면 덕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사명을 다하면 덕이 있다. 경건한 삶
2. 지식: 덕은 지식을 가져온다. 지식은 분별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2), 말씀에 대한 지식(20-21), 너무 하늘의 일에 매달리다 보니 세상일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지식이 너무 넘치면 교만하기 쉽다(고전8:1).
3. 절제: 조절하는 것, 올림픽 출전 선수는 절제한다(고전9:25; 잠16:32; 25:28).
4. 인내: 어려운 상황을 참아내는 것,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수고해야 얻을 수 있다(약1:2-8).
5. 경건(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 그분처럼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이상의 고상한 것들을 추구한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람의 복지, 경건하고 선한 결정
6. 형제의 친절: 특히 초대 교회에는 이것을 강조함(엡4:32; 히13:1; 뱀전1:22; 롬12:10; 요일 5:1-2)
7. 사랑(아가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사랑(고전13; 골3:14), 희생과 긍휼의 사랑

불신자가 이런 성품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령님이 하신다.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다 이 일곱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부족한가 늘 살펴야 한다.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본성이 있으므로 이런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될 수 있다(롬8:29).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을 본받으려 하지 말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이 주어졌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될 수 있다.

베드로전후서 강해 15

베드로후서 1장

실제 삶의 결과(8-11)

1-7절: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믿음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친절, 사랑

8절: 이것들이 풍성해야 한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야 부유하고 강건한 자가 될 수 있다.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한 지식이나 재주는 꼭 영적인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마7:15-23) 특히 20절.

신실한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9절: 불신자는 눈이 어둠 속에 있다(고후4:3-4). 신자는 다시 태어나면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왕국을 본다(요3:3). 그런데 근시인 사람이 있다. 눈에 영양분이 주어지지 않으면 건강을 잃는다. 자기와 자기 교회만 보지 말라. 라오디게아 교회(계3:17-18). 근시안인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잃은 자다.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의 관점이 없다는 것이다(고후4:18).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억하라(고후5:10).

10절: 부르심과 선택을 확고히 하라.

칼빈주의에서는 선택이 확고하므로 확고히 할 필요가 없다. 이 뜻은 무엇인가? 고후13:5

구원이 의심되면 다시 한 번 성경을 들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가? 혹은 교회나 방법을 신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피에 의한 대신 속죄

여기의 넘어지는 것은 구원 상실이 아니다. 여기의 넘어지는 것은 갈5:4의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다. 거기는 아예 구원이 없는 것을 말한다. 여기는 고전10:12의 넘어짐

그리스도인이 넘어질 때 기억해야 할 구절들(시37:23-24; 잠24:16).

11절: 이렇게 자신을 점검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는다. 구원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관계가 없다. 그렇게 하면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풍성하게 제공된다(엡2:8-10).

다시 말해 많은 보상을 받으며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별거벗은 채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고전 3:11-17).

베드로의 경고 이유(12-14)

12절: 목사의 임무: 성도들이 진리에 서 있어서도(즉 그들이 이미 알아도) 그것들을(3-11절) 기억하게 해야 한다. remember가 12-15에 3번 나옴. 코카콜라가 잘 팔리는 이유: 이미 있는 줄 알아도 다음에 자동으로 코카콜라를 주문하게 하기 위해 광고한다. 갈증이 나면 코카콜라를 마시게 그래서 집이든 사무실이든 차든 성경 구절을 써서 붙여놓으면 좋다(신6:7-8)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눅11:32)

바울의 가르침(행20:28-32)

13절: 그래서 살아 있는 동안 훈계한다. 장막(고후5:1-5), 이것이 합당하다. 베드로는 곧 죽을 것을 알았다.

14-15절: 내가 애쓴다(목사의 심정). 부지런히 충고한다.

내게 보여 주신 것 같이(요21:18-19의 순교자의 죽음)

12-14절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는 일에 힘을 썼다.

비록 그들이 진리에 서 있어도 반복적인 가르침이 필요하다.

목사는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빌3:1). 아벨처럼 죽었지만 여전히 말한다(히11:4).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 요한 등은 여전히 말한다.

베드로전후서 강해 16

베드로후서 1장: 오직 성경(15-21)

베드로가 성도들이 기억하도록 애를 씀(15)

목사와 교회의 모든 가르침은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나와야 한다.

특히 재림에 관한 것: 요즘 천국과 지옥, 땅굴 등 종말론적인 이야기가 난무한다.

과거에 다미 선교회, 1992년 10월, 2000년 지상 재림, 여기서 7년을 빼면 1992년 말

이 일로 인해 한국 교회는 큰 부작용: 안티 기독교, 재림과 휴거 안 가르침

베드로후서는 재림에 관한 말씀

16절: 변화산 사건(마17: 막9; 눅9)

마16:16 고백, 18: 교회 설립, 21: 고난 예고, 22-23: 베드로 책망, 24-26: 제자의 도리,
27: 제자의 보상(재림 때), 28: 왕권,

17장 1-2: 변화산, 3: 모세, 엘리야, 4: 3 장막, 5: 하나님의 음성, 9: 말하지 말라.

마태, 마가, 누가는 실제로 그것을 보지 않았다(요14:26).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 있었다. 눈으로 본 사람이 직접 증언하고 있다.

16-19의 우리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이다. 요한의 말(요1:14)

변화산 사건의 중요성:

1. 베드로의 증언 확증(마16:13-16):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요일5:20;
행8:37).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

하나님의 아들(총 48회, 구약 1회, 신약 47회)

아들의 용례(요5:17-18), 하나님의 아들=하나님, 사람의 아들=사람(시8:4), 신성과
인성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행4:36)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마귀의 시험(마4:3), 마귀들의 인지(마8:29), 제자들의 인정
(마14:33), 베드로의 인정(마16:16), 대제사장의 질문(마26:63-66), 백부장의
고백(마27:54)

아들 하나님(God the Son)=삼위일체의 둘째 인격체

2.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중이다. 이때 아버지는 아들을 강건하게 하신다. 율법과 대언자(모세와
엘리야 말4:4-5, 계11의 두 증인)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림. 이제 그분은 그 사역을 이루셔야
함(즉 그분은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성취해야 함(눅24:27)). 이때에 아버지께서 자신의 사랑
을 확증하심

3. 왕국이 임한다(마16:28). 제자들 중의 일부는 죽기 전에 왕국이 임하는 것을 본다. 16절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은 바로 재림 시의 왕국 권능, 제자들은 왕국을 기다리는데 그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우리는 성경이 있기에 왕국을 이해하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힘들었다.
이때 그분은 왕국이 임함을 몸소 보여 주셨다. 특히 요한에게는 요21:22-23(계시록)

베드로 당시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왕국이 임하지 않는다, 재림이 없다(벧후3:3-4). 그런데
이것은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이다(16절).

1. 꾸며낸 이야기(myth or fable)는 말 그대로 신화 즉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고대 로마와
그리스에는 이것이 많았다. 홍해가 아니라 갈대밭, 재림과 휴거는 우화가 아니다.

2. 바울의 경고(딤후1:3-4; 4:7), 말세의 특징(딤후4:4) 지금 식으로 말하면 땅굴 이야기, 천국
지옥 간증(벧후2:1의 정죄받을 이단 교리)

베드로는 본인이 직접 그분의 위엄을 보았다고 말한다.

17-18절: 또한 그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

경험을 무시하지 않지만 경험은 주관적이다(벧후2:3). 또 사라진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험은 희미하다(요12:27-28).

19절: 우리에게는 경험을 초월하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인 성경이 있다.

16절의 꾸며낸 이야기는 말씀에 비하면 겨와 같다(렘23:28).

성경은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영원하고도 객관적인 기록이다.

성경은 실제적인 책이다(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119:9

성경은 빛이다(시119:105).

새벽에 빛이 비치면 얼마나 환한가?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의 말씀도 빛이다.

날이 새는 것: 그리스도인에게는 휴거의 날, 셋별은 주 예수님(계22:16)

20-21절: 딤후3:16-17과 함께 성경의 영감을 보여 주는 위대한 말씀

20절: 성경의 모든 기록은 개인이 사적으로 해석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히1:1).

개역성경은 다른 의미: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을 사적으로 풀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대언은 사적으로 해석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잘못하면 개인이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것으로 비침(큰 위험).

21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움직여서 말하게 하심: 딤후3:16의 하나님의 영감
암7:14-15

이것은 기계적 구술이 아니다. 펜이 다르다. 펜의 특성이 들어 있으면서 무오류

빨간 펜, 검정 펜, 두꺼운 펜, 얇은 펜 등 종류가 다양하다. 지식인, 정치가, 농부, 어부 등 그럼에도 성령님은 그들을 움직여 오류가 없는 성경을 주신다.

개역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OOO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언이 아니라 대언,

거룩한 삭제, 대언자들은 거룩히 구분된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심지어 모세, 다윗과 같은 살인자도 있음).

영감은 성경기록에 있다.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다(시119:140)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16절의 꾸며낸 이야기와 2:3의 거짓말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벧전1:23-25).

베드로전후서 강해 17

베드로후서 2장: 거짓 교사들

현 시대의 특징: 짝퉁 성행, 모방 혹은 위조품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마귀는 모방의 대가(고후11:13-15), 마귀가 하는 일: 속임수(고후11:1-4)

거짓 성도(마7:21-23; 13:38; 요8:44), 다른 복음(갈1:6-9), 다른 영(요일4:1)

심지어 거짓 그리스도(살후2; 계13)

이스라엘 백성 멸망의 원인: 거짓 대언자들, 엘리야 시대 바알의 대언자 450명, 거짓 평안(렘5:30-31, 6:13-14, 16)

초기 교회의 대언자들과 사도들이 기초를 놓고 사라짐. 그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등장함

교회 패망의 원인: 거짓 교사들(행20:28-30)

베드로후서 2장은 유다서와 거의 비슷하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1-3)

1. 속임수(1)

이들의 가르침은 정죄 받을 이단 교리(행위 구원, 지상 낙원, 140,000, 지옥 없음 등)

방법이 교묘함: 몰래 들어와 가르침(갈2:4-5), 마7:15-16

1880년 영국개역성경위원회의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교묘히 행하다가 결국 수정 본문을 만들 교묘한 거짓말(3): 구원, 영감, 그리스도 등을 말하는데 다 거짓이다. 성경을 가지고 속이려 든다.

마귀가 이브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수법(창3:1-6)

(1) 말씀 의심(3:1), (2) 말씀 부인(3:4), (3) 말씀 대체(3:5)

마4장의 마귀의 시험

이자들은 말씀을 알면서도 왜곡하여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려 함

2. 부인(1)

성경 기본 교리: 성경의 영감과 보존, 창조,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성, 대속의 죽음, 사람의 죄, 믿음에 의한 구원, 부활과 휴거, 최후 심판 등

특히 그들은 그들의 구원자인 주님을 부인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지요,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들은 양이 아니라 개와 돼지이다(2:22; 유19; 롬8:9). 즉 불신자이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불신자들도 자기 피로 사셨다. 칼빈주의의 제한 속죄는 엄밀한 의미에서 틀린 교리이다(요일2:2). 모두를 위해 죽으셨지만 믿음으로 수용하는 자들에게만 유효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아들 하나님, 구원자, 창조자

이런 자들은 분명히 파멸을 당한다.

3. 진리의 길 비방(2)

그들의 길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악독한 길이다(잠14:12; 16:25).

킹제임스 성경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자들

베드로전후서 강해 1부

베드로후서 2장: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1-3)

베드로후서는 재림에 관한 것이다. 이때에 특히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난다.

1. 속임수(1): 정죄 받을 이단 교리(행위 구원, 지상 낙원, 140,000, 지옥 없음 등)
2. 주님 부인(1):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아들 하나님, 구원자, 창조자
3. 진리의 길 비방(2)

그들의 길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악독한 길이다(잠14:12; 16:25).

킹제임스 성경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자들, 킹제임스 성경은 가장 많이 인쇄된 책

4. 탐욕(3): 탐욕은 우상숭배(골3:5)

성도들을 상품 취급, 대개 목회로 크게 성공한다. 따르는 자들이 많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일한다(살전 2:5; 미3:11). 목회자도 사례를 받아야 하지만 적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바른 일이 아니다(고전 9; 벰전5:2).

교회에 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이 있으면 빨리 그런 데서 나와야 한다.

목회자 타락의 원인: 성적 타락, 돈을 사랑함, 교만

거짓된 말들 사용: 부풀린 말(Plastic), 청산유수(백성이 원한다 딤후4:1-4).

종교는 약한 사람들을 엮어매는 좋은 수단

올바른 사역자는 투명해야 한다(고후1:12).

거짓 교사들의 패망(3-6, 9)

WCC: 모든 종교는 같다. 그들은 바른 길을 저버렸다(2:15).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은 확실하다(3). 유6-8과 병행 구절

1. 타락한 천사들(4)

창6의 하나님의 아들들(창6:1-5), 이미 벰전3:19-20에서 설명함
타르타로스, 심판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가두어 둠(유6)

2. 노아 당시의 옛 세상(5)

120년을 참으심, 노아의 가족 여덟 명을 구원하심(히11:7)

창세기 5장, 역대기상 1장에 보면 노아는 아담의 십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엘,
야렛, 에녹, 므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이 있었더라(대상1:1-4).

베드로후서의 문맥은 방주에서 구원받는 것, 여덟 명이 구원받았고 노아는 여덟째 사람이다.

악한 자들은 아예 사본을 뜯어고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 일곱 식구들' 첨가시켜 놓았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개역성경 벰후2:5)

결국 홍수로 모두 사망함

3. 소돔과 고모라(6, 9), 창18-19

이 사람들의 상태(창13:13),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음행에 자신을 내줌(유7)

더러운 행실(7), 불법 행위를 저지름(8), 동성애는 본성에 역행하는 것이다(롬1:24-27; 레18:22).

인류 문명 멸망의 원인 중 하나: 동성애, 동성애 합법화(차별 금지법)는 곧 기독교 탄압으로 이어진다.

1. 게이는 유전적인 것이 아니다. 치유 가능하다.
2. 게이들의 결혼 합법화는 게이 문화를 조장한다.
3. 게이들의 결혼은 온갖 형태의 결혼을 가능하게 만든다(근친상간, 수간 등).
4. 게이들은 게이를 키운다. 5. 이성 간의 결혼이라야 자녀 출생 가능
6. 게이들은 사회의 근간을 파괴한다.

아브라함의 증보기도(창18:22)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 심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여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확실하다.

참 성도들의 구원(5-9)

1. 노아(5): 그가 살던 세상은 사악함의 극치, 120년 선포, 한 명도 회개하지 않음
이런 세상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가족이 살았다. 지금은 거기에 비하면 훨씬 낫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이들을 구출해 주셨다.
우리는 세상 밖에서 살 수는 없다(고전5:9-10).
그리고 홍수에서 구출해 주셨다. 이들을 구원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벧전3:20-22)
그때의 세상은 혼수의 침례 속에서 묻혔지만 그는 방주를 통해 부활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노아의 배가 아라랏에 닿은 날은 7월 17일(창8:4), 출12장의 유월절이 생기면서 7월이 1월이 됨.
그 이후로 1월 17일은 초실절이요, 이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노아의 구원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이다.
2. 롯(6-9): 아브라함의 조카,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이집트에 갔다가 세상맛을
보았다(창12:10-13:1). 그 뒤로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였다(창13:12; 14:12).
하나님은 국지 전쟁을 통해 롯을 구하려 했으나 그는 구출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소돔에 살았다(창14).
그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다(7). 우리는 왜 그가 그리했는지 알지 못한다. 미스터리 맨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그 사악한 땅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창19를 보면 그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다. 둘은 소돔 사람들과 결혼함(창19:14).
그 안에서 살면서 그의 혼이 고통을 당함(7). 롯의 소돔 성 구원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9).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식이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도 있었다.
노아는 물로부터 구출됨, 롯은 불로부터 구출됨
하나님께서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지만 불로 하신다고 말씀하심(벧후3:6-7).
그래서 롯의 구출은 재림 때 환난기 성도들의 구출과 비슷하다.
환난기의 심판 중 하나(슌14:12)
교회는 환난기 이전에 휴거를 받는다.
베드로는 롯의 행위를 칭찬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말한다. 7년 환난기도 마찬가지, 구원받은 자는 다 휴거 받는다.
다만 롯처럼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에게에는 보상이 없다.
주님께서서는 노아와 롯의 예를 들면서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신다(눅17:26-37).
소돔 사람들의 특징(눅17:27-28), 그러나 우리는 순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벧후3:14).
결국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노아 시대의 도시들은 심판을 받았다. 우리는 나은가?
아니다. 다만 오래참고 기다리신다(벧후3:9).
3.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분리(separation)이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분리의 명수: 노아의 방주의 사람과 짐승, 아브라함, 유대인, 유대인도 지파별로
분리, 정한 짐승과 부정함 짐승(레11). 성도도 분리됨, 세상도 쫓겨심(행17:26-27)
분리는 진리를 걸러내는 일, 목사와 교사의 일: 분별과 분리(겔44:23)
현 시대는 모든 것을 통합하는 시대(integration), 적그리스도는 통합의 명수(단8:25)
통합의 이유: (1) 두려움, (2) 많은 돈을 벌기 위함
은 세상이 통합 분위기라 분리라는 말/행위 자체가 배척을 당함
많은 교회들이 종교 일치 운동: “교회가 교회가 아니다.”
고후6:14-7:1,
분리의 원칙: 기준: 미심쩍으면 피하라. 대부분 그런 것은 더럽다.

베드로전후서 강해 19

베드로후서 2장: 거짓 교사들의 문제

베드로는 자기의 유언인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1장에 구원과 성도의 신분 등에 대해 긍정적인 것을 기록한다. 그리고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부정적인 것을 기록한다. 균형 사역이 두 가지 사역이 병행되어야 교회가 살 수 있다.

베드로후서는 재림에 관한 것이다. 이때에 특히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난다.

베드로후서는 이들에 대해 매우 심도 있게 다룬다. 지난 주 이들에 대한 심판, 이번 주 이들의 문제

1. 비방과 중상(10-12)

권위, 행정권 등을 모두 무시(10),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것(롬13:1),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타나는 인간정부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딤후2:1-2). 그들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벧전2:3-17).

부모와 자식(엡6:1-4), 주인과 종(엡6:5-8, 노사),

교회에서도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히13:7, 17; 벧전5:1-6).

비방의 원인: 육체를 따름(10), 타락한 본성은 원래 권위에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 교만이 항상 문제다(잠16:18; 21:24). 사탄과 사람의 타락 원인

예수님께서 하신 일: 교만이 아니라 겸손(빌2:5-8)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 뜻대로 행한다(10). 두려움을 모른다.

위엄 있는 자들(10)은 권세자도 되고 천사들도 된다. 심지어 악한 마귀도 비방하면 안 된다(유8-9).

심각하게 비방한다(11). 천사들은 위엄과 권능이 우리보다 커도 자기 영역이 아닌 데는 참견하지 않는다.

여기의 뜻은 선한 천사들도 심지어 악한 천사들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의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딤후3:1-2). 다니엘의 경우: 음식 문제, 그러나 은혜롭게 해결함

비방의 결과(12): 거짓 교사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22절의 개와 돼지). 멸망한다. 이들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한다.

2. 방탕(13-14)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상품 취급하며(2:3) 사치와 방탕에 빠진다(13). 최고 명품을 추구하는 목사들 No! 심지어 대낮에도 방탕한다.

애찬에서도 문제가 생긴다(13). 고전11:20-34의 주의 만찬 문제(17, 22, 33-34)

교회에서도 부자들만이 대접을 받으면 문제가 된다(약2:1-4).

그래서 점과 흠이다(13): 주님과 교회에 불명예를 가져온다.

이단 교리를 지니면 쓸모 없는 존재가 된다.

이들은 교회에서 두 가지를 한다(14): 1. 간음과 욕정의 눈(딤후3:6의 여인들), 교회에서 음행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특히 어린 성도들이 관심 있게 보아야 한다.

2. 초신자들을 희생물로 삼음, 불안정한 혼들: 에덴동산의 아담과 이브, 이리저리 교리의 바람에 밀려다님(엡4:14), 미끼: 자유(19)

이들은 탐욕이 가득하다(딤후6:10; 눅12:15)

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마25:41)

원숭이 잡는 틀: 좁은 병, 안에 먹을 것을 두면 원숭이들이 먹이 때문에 잡히고 만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여야 한다.

3. 반역(14-16)

이들은 바른 길을 알면서도 버리고(15) 악한 길을 따른다. 그래서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 불림(2:12).

말은 마음대로 앞서고 노새는 뒤로 처진다(시32:9).

이들의 타락 원인: 불의의 샅을 사랑한다(15). 이들은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으는 데 명수다.

발람 이야기(민22-25), 모압의 발락, 이방인 대언자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다. 발람은 그 일이 잘못된 줄 알았지만 탐욕으로 인해 결국 가게 된다.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와 길을 알았지만 악한 길을 선택하였다. 발락에게 갈 때에 나귀가 말을 하며 그를 꾸짖음(민22:22-35). 심지어 짐승도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데 사람이 안 한다(사1:3).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주저하지 못했다.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하여 간음하게 함(미25). 24000명이 죽음(민25:9)

나중에 여호수아에 의해 죽임을 당함(수13:22)

발람은 청산유수로 말을 함(민22:34; 23:10).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으나 결국 마귀의 일을 함
순서: 발람의 길(2:15), 잘못(유11), 교리(계2:14)

거짓 교사들도 발람과 비슷하다.

미국의 TV 부흥사들, 릭 워렌, 조엘 오스틴, 로버트 슐러, 신천지 이만희, 사교 종파의 우두머리들

베드로전후서 강해 20

베드로후서 2장: 거짓 교사들의 문제

거짓 자유 약속(17-22)

이단/사교에 빠진 사람들: 과거에는 바른 교회에 다니며 믿음 생활을 했다. 그런데 바른 교회를 빠져나온 지금 참 자유를 누린다고 주장한다. 이제야 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자유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다. 자유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방종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거짓 교사들의 유인 미끼: 자유

- 거짓 약속(17-18), 믿음의 약속 성취는 믿음의 대상에 달려 있다.
 - 물 없는 샘: 물이 없어도 샘은 샘이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사람의 내면에는 영혼의 갈증이 있다. 이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는 샘은 소용없다(요4:13-14).
 -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 유12는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 비를 줄 것 같은데 주지 않는다.
- 이들에게는 어둠의 안개가 마련되어 있다(유13).
- 이들의 특징(18): 청산유수, 사람의 말이나 지혜에 믿음을 두면 안 된다(고전2:1-5). 1, 4명심
- 대개 정욕과 방종으로 새 신자들을 유혹한다.
- 그래서 목사나 교사는 초신자는 안 된다(딤후3:6).
- 이들은 자유를 약속하는데 정작 자기들은 부패의 종이다(19). 아이러니, 여호와와의 증인들, 물론 등의 이단: 교단과 목사와 교회의 종이다. No! 책, 모임 등을 규제하면 안 된다.
진리는 자유를 준다(요8:22). 마르크스, 레닌, 마오쩌퉁, 김일성의 공산주의 교리는 거짓이다.
- 거짓 크리스천들의 결말은 가면 갈수록 나빠진다(20).
- 17-22절의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다. 이들은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유19). 열매로 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종교적 체험이 있다. 말씀을 가지고 체험을 나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다.
- 베드로전후서에는 두 그룹의 사람이 나온다,
 - 구원받아 (새로 태어나)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벧후1:4), 양(벧전2:25)
 - 거짓 교사들은 새로 태어난 적이 없다. 구원의 지식, 교회의 용어, 체험을 말하는데 양이 아니다.
의의 길을 알기도 함(21). 그러나 한 번도 주님을 신뢰한 적이 없다. 이들은 양이 아니라 돼지와 개다.
- 사탄은 모방의 명수(갈1:6-9), 그의 사역자들(고후11:13-15)
- 이들의 체험: 돼지의 걸을 씻겨도 속은 여전히 돼지이다. 개도 마찬가지로이다. 체험은 본성을 바꾸지 못한다. 오히려 다시 돌아감으로써 정체를 드러낸다. 개는 체한 뒤 토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데 그것을 또 먹는다. 아마도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기억했을지도 모른다.
- '김유신의 딸', 거짓 교사들은 본성이 변하지 않았다. 탐욕, 음욕, 사치와 방탕, 무질서, 속박의 종, 김유신과 천관녀
- 그래서 우리는 벧후1:10에 유의해야 한다. 속이 변하였는가?
-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진리 안에 들어와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베드로후서 3장: 재림과 주의 날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1-9)

모든 사람이 여러 분야에서 무지하다. 무지: 배울 기회, 능력이 없는 경우

그런데 벧후3장에는 고의로 무지하기 원하는 자들이 있다(5). 특히 주의 재림에 관하여(1:16)

베드로는 2장에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 말하였고 3장은 그들의 구체적인 가르침에 대한 것이다.

1-2절: 후서 기록의 목적, 벧후1:12-15의 반복

하나님의 진리: 많은 회생이 따른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수많은 대언자, 성도들의 피

그래서 성도들은 초신자부터 연륜 있는 성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에 젖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롬13:11-14).

재림, 주의 날 등은 베드로의 발명품이 아니다.

주의 날과 환난기(야곱의 고난의 때), 에녹(유14-15), 수많은 구약의 대언자들(이사야, 예레미야, 다네일, 요엘 등)

주님(마24-25), 바울(살전5, 살후1-2), 계시록(6-19)

환난 전 휴거와 부활, 천천년 믿음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만 꽂히면 안 된다.

성경 신자는 균형이 있어야 한다. 신구약, 창-계, 성경의 모든 교리

가장 중요한 것: 가정에서의 삶이 좋아야 한다. 교회가 아니라 가정

베드로전후서 강해 21

베드로후서 3장: 재림과 주의 날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1-9)

3-4절: 조롱하는 자들의 주장: 재림(심판)이 어디 있나?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존재한 대로 균일하게 진행된다(4).

이들은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같은 대격변의 심판을 믿지 않는다: 창10:25의 벨렉, 에베레스트 물고기 화석, 솔트레이크, 바이칼 호수.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으므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Uniformitarianism).

진화론의 핵심: 모든 것이 균일하게 변한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 자체가 모순이다.

아메바에서 원숭이 사람, 원숭이와 사람 사이의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한다.

이 우주 안에 단 하나도 없다. 다른 것들도 동일하다.

한 마디로 이들은 정육과 탐욕 가운데 살려고(2:10, 18)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다.

세상 지식(생활양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무엇을 바꿀 것인가?

5-7절: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격변)을 증거로 낸다(창1-9장 사건).

하나님의 창조 역사(5)와 노아 홍수(6)

창조: 창1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르시 되”가 9번(시33:9),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유지하신다(히1:3).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께서 그 세상에 간섭하셔서 원하시는 대로 하신다.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 땅과 바다의 분리(둘째 날 창1:9; 시24:2; 104:5-9)

홍수(6): 노아의 홍수는 이미 언급됨(2:5). 홍수 자체는 균일론에 정면으로 위배됨(3-4절 반박)

베드로의 포인트: 하나님은 언제라도 역사에 개입할 수 있다.

지금 세상(7): 지금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유지되다가 불에 의해 파괴된다(창9:11-13).

5-6절의 물과 관련해서 창조/재창조 이야기

우리는 창1:1에서 지금까지 약 6,000년이라고 믿음,

재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창세기1장 1절과 2절 사이에 아담 이전의 다른 인류가 존재하였고,

그 세상이 노아 홍수와는 다른 종류의 물 심판으로 멸망했다고 보고 있다. 이 기간에 천사들의 창조와 사탄의 타락이 있었고, 매우 길고 긴 어찌면 수십억 년의 기간이 존재했다.

이들은 6절의 ‘그 때 있던 세상’이 아담 이전 세상이라고 말한다. No! 옛 세상(벧후2:5)

베드로가 제시하는 성경의 세상: 예 세상, 지금 세상, 다가올 세상

조롱하는 자들의 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균일하다.

베드로는 No!라고 말한다. 조상들이 잠든 이래(즉 아담 이후)로 격변이 있었다.

여기의 조상들은 누구일까? 아담 이전의 인류가 아니다. 벧후 3장에서 ‘비웃는 자들’이 부정하고

싶은 것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이전 세상의 격변’이 아니다.

6절의 물의 넘침은 노아 홍수, 이로 인해 멸절된 것은 지면 위에 있던 모든 생명체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의 날짐승(창7:23), 따라서 창1장처럼 별, 바다생물이나 식물을 재창조할 이유가 없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의 그것은 ‘물’이다.

8-9절: 하나님의 긍휼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다(시90:4). 모세의 기도

하나님은 영원하다(eternal): 시작과 끝이 없다. 사람은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일하시지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창조, 이스라엘 구원, 메시아 초림 등): 시정각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 있다(엡3:10).

“사람의 1000년이 그분께는 하루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렇게 참으신다.

창조의 6일, 일곱째 날 안식, 인류 역사 6000년, 1000년 왕국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께서는 9절대로 오래 참으신다(15절 참조).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딤후2:4; 겔18:23, 32; 33:11). 사악한 자가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미 노아의 대홍수 때에도 120년 동안 오래 참으셨다(벘전3:20).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 그러나 결국에는 심판이 임한다.

‘우리를 향하여’의 ‘우리’는 문맥상 전 인류를 뜻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벘후1:10).

회개: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도 행동으로 돌아서는 것

10-13절: 주의 날(10), 하나님의 날(12)

이런 경우의 날은 하루가 아니라 기간: 주님, 하나님이 위엄을 보이며 영광을 받으시는 기간
 그리스도의 날(살후2:2)

주의 날: 휴거, 7년 환난기, 1000년 왕국(심지어 새 하늘과 새 땅) 포함

10-13절은 전체적인 주의 날을 이야기한다.

10절: 주의 날은 재림하시는 날, 아무도 모른다(마24:43; 눅12:39; 살전5:2).

대부분이 예비하지 않은 때에 임하신다(살후5:3).

우리는 때는 모르지만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곧바로 1000년 왕국을 넘어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한다. ‘천년이 하루’
 이때에는 모든 것이 해체된다(고후4:18). 큰 소리, 원자의 구조



원자: 화학 원소로서의 특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
 서 도달할 수 있는 물질의 기본적인 최소 입자.
 양성자의 숫자와 음 전하를 띤 전자의 숫자가 같아
 전기적으로 중립. 핵력, 같은 전하를 가진 양성자
 들이 핵에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서로
 를 밀어내지 않고 알 수 없는 신비의 엄청난 응집력
 에 의해 굳게 결합되어 있다. ‘우주의 근본적인
 신비’. 이 현상이 없다면 온 세상 만물은 해체됨.

탄소(C): 양성자 6, 중성자 6, 전자 6, 번호 6

11절: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벘전1:15).

13절: 새 하늘들과 새 땅(계21:1, 5)

14-18절: 마지막 권면, 벘후는 베드로의 유언

14절: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화평 중에 발견: 불신자
 혹은 육신에 속하 그리스도인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암4:12).

15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바울 서신의 구원관과 심판관

15-16절: 바울 서신에도 이런 것들이 기록됨, 베드로는 바울 서신을 성경기록으로 인정함
 심지어 베드로가 보기에 어려운 데가 바울 서신에 있다: 특히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 등.

이단(배우지 못한 자, 불안정한 자)은 성경기록을 왜곡함으로써 새긴다. 영해, 시대와 수신자 구분하지
 않음.

그 결과 멸망에 이른다(딤후3:10-11).

17절: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그 사악한 자들)을 피해야 한다(롬16:17-18; 요이9-10).

특히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부인하는 자들, 삼위일체 하나님 부인하는 자들
 여기의 떨어짐은 구원 상실 아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

18절: 이들을 피하려면 성장해야 한다.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은혜: 인격의 성장(벧후1:5-7; 갈5:22-23; 엡4:15), 은혜로 구원, 인격의 변화: 많은 경우 고통과
고난 감내
지식의 성장(엡4:12-15), 은혜와 지식의 성장은 오직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